

2022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

목 차

I	개요	05
1.	연구의 개요	07
2.	미래유산의 개념 및 성격	10
3.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13
II	서울 미래유산 주요 지원사업	21
1.	미래유산 지원사업의 내용	23
2.	위기의 미래유산 지원사업의 내용	35
III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43
1.	2022년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45
2.	미래유산 선정현황	51
3.	분과별 미래유산 산정목록	53
IV	서울 미래유산 현황 및 향후과제	97
1.	미래유산의 사회적 인지도	99
2.	미래유산의 문화영향평가	102
3.	미래유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107
4.	전문가 자문회의	111
5.	향후과제	117
V	서울 미래유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119
1.	발전방향	121
2.	추진과제	123
	참고문헌	135

|

개요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현대를 살아온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서울의 문화가 되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여전히 전통시대와 그 맥을 함께 하는 것도 있고 전통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것도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외래에서 유입된 것도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접목되어 새로이 창조된 것도 있다.

이러한 문화는 근·현대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시기와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해석되지 못하였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의 수용과 기술발달로 인한 편리성의 추구 속에서 근·현대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조차 형성되지 못한 채 쉽게 잊히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기존의 법과 행정에 의해 규정된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보존가치가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으면서 현실의 이용가치와 대치하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 보존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소유자·관리자에게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자긍심을 부여하여 주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미래유산은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식을 수용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여 보존·활용 방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연한 성격의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2013~2022년 동안 505건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는 4건의 미래유산이 소유자·관리자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의 궤를 함께한다. 따라서 2022년 1월 이후의 시민제보, 전문가 제안, 서울시 관련 부서의 요청사항 및 자치구 제안사항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연구진의 자체 발굴을 통하여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선발하는 한편 선발된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표를 작성하고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미래유산 선정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의 미래유산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텍스트 마이닝,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미래유산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미래유산의 발굴·기초현황조사

2022년 01월 이후의 시민제보,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추천사항, 미동의 유산, 연구진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103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발굴하고 지난해에 유보되었던 9건을 재검토했다. 발굴 및 유보되었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심의상정을 위한 기초심의를 실시하고, 기초심의를 통과한 58건 중 서울시 협의를 거쳐 최종 29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하여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는 조사원이 건축물대상, 토지이용대상 등의 문서열람,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관련자 인터뷰, 관련자료(史料)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현황조사표의 내용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현황조사표는 크게 ①일반현황, ②보존필요성, ③활용방향, ④현장조사, ⑤소유자·관리자 면담, ⑥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⑦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⑧기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미래유산의 선정

2022년 11월~12월, 5차례 개최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하여 9건의 미래유산(정치역사 1건, 시민생활분과 2건, 도시관리분과 6건)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소유자·관리자 동의과정을 거쳐 4건의 문화유산이 2022년 미래유산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편, 미래유산으로 지난해 선정된 506건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산문화센터(옛 공단복지관)가 재개발되어 G밸리 창업복지센터로 개관하였으며 대성관, 성진한의원, 통솔집은 폐업, 홍성균 한의원은 경기도로 이전하게 되어 미래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2022년, 선정이 최종 확정된 505건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서울 미래유산 선정목록과 분포지도를 업그레이드하였다.

미래유산의 보존·활용 지원사업 검토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원사업은 대상에 따라 서울 소재 미래유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위기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던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위기의 미래유산은 미래유산 가운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관리주체가 없어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적극적인 수리·보수로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데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안별로 여건에 맞추어 직접인 지원을 하는 위기의 미래유산 지원사업과는 달리 미래유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 미래유산 홍보사업,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사업, 미래유산 홈페이지 운영사업,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미래유산 민간단체 지원사업, 미래유산 홍보관 운영사업 등은 시민홍보나 교육, 이벤트 등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인지도 향상을 유도하는 간접 지원방식이 대부분이다.

미래유산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제안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미래유산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문화영향평가,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의 다양한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미래유산의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유산 관련 언론 기사를 검색하고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미래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이때 미래유산과 정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건축자산, 오래가게, 우수한옥 등을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제시한 기본지표를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도 실시하였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전·현직 미래유산 보존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미래유산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통계분석과 함께 전·현직 미래유산 보존위원 11명을 대상으로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하였다. 5개의 미래유산 분과에서 미래유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보존위원을 선별하여 그동안의 정책적 성과를 회고하고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추진과제와 함께 제안하였다.

2. 미래유산의 개념 및 성격

2.1 미래유산의 개념

미래유산이란 서울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과 감성은 다양한 세대와의 공유를 통하여 미래에 전승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가치는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미래유산은 과거 지향적인 기존의 문화재와는 달리 이러한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미래유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래유산의 가치유동성은 미래유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기존 문화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개념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가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혹은 공유할 수 있거나 공유할만하다고 추정되는 집단기억 또는 감성을 중시한다. 미래유산은 전문가들에 의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정리·선별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기억 또는 감성에 대한 사회적, 혹은 정서적 합의에 기초한다. 전문가의 전문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간의 느슨한 합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유산의 가치 유동성을 수용하는 한편 기존의 법·제도에서는 그 보전가치가 논의되지 않았던 집단 기억 또는 감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기존 문화재의 정의

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예비문화재

-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미래의 가치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예비문화재의 정의

2.2 미래유산의 성격

과거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유산은 역사적 의미에서의 보존가치와 현재 시점에서 사용가치 측면으로 그 성격을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보존가치란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그리고 상징적 가치를 의미하며 사용가치란 활용측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경제적 가치란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용을 제공하는가, 또는 지역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공유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문화재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중히 여겨왔으며, 이러한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선정하고 보존방법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문화유산에 담긴 보존가치와 함께 사용가치도 고려하여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삶의 방식과 생활문화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쉽게 사라지거나 잊혀져가는 우리의 생활 모습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정신적·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유산은 근·현대 시대를 살아온 서울시민들이 서울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이라는 보전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담고 있다. 미래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시대성: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사건, 인물, 사물, 장소 등과 관련이 있을 것
- 지역성: 서울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하여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
- 공유성: 서울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일 것
- 민속성: 서울시민의 생활특성을 반영한 사회·문화적 또는 민속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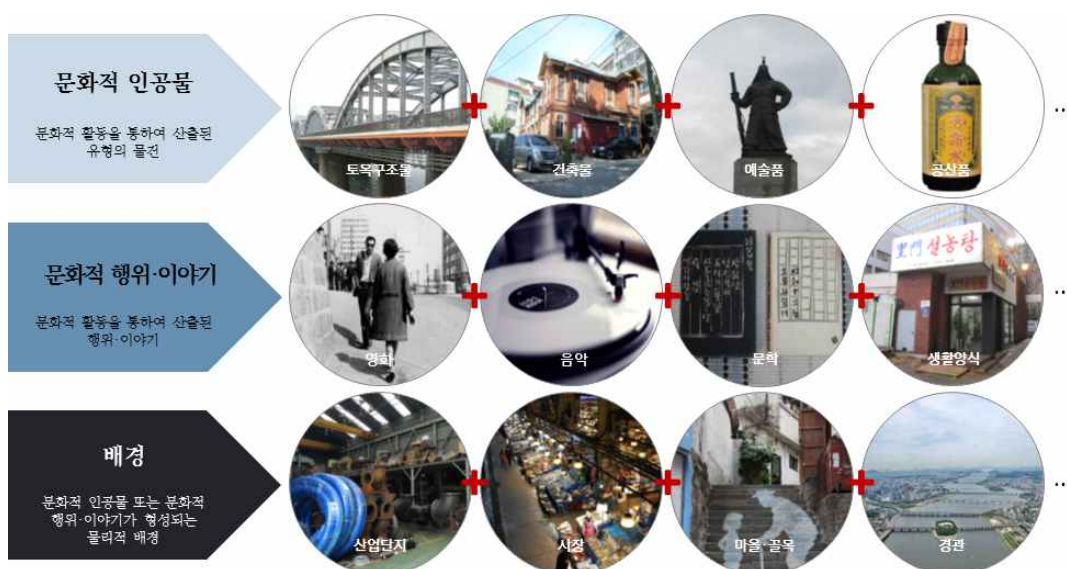
2.3 미래유산의 유형

미래유산의 외현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ifact), 문화적 행위·이야기(cultural behavior·story), 배경(cultural background)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미래유산 보전정책을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물, 사람들의 행위이나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스토리, 그리고 사물이나 행동 또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장소·문화적 배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경험된다. 따라서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보전하는 일은 이러한 보전가치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인공물, 문화적 행위·이야기, 배경을 미래유산으로 보전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먼저, “문화적 인공물”이란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을 하나의 사물로서 구체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것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토목구조물이나 건축물 등과 같은 건조물, 회화나 조각, 공예품, 공산품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행위·이야기”는 의식이나 기술, 전통과 명성, 이야기거리 등과 같은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노래, 지역의 전래의식, 장인의 기술이나 오래된 가게의 명성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인공물 또는 문화적 행위·이야기 등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 등을 “배경”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비교적 공간적 범위가 넓은 마을이나 시장,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미래유산의 유형

3.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3.1 미래유산의 대상 및 선정기준

서울 사람들이 공유하는, 혹은 공유할 수 있거나 공유할만하다고 추정되는 집단기억 또는 감성의 대상이면 무엇이든 미래유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의 가치가 객관적 보편성을 획득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미래유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문화재는 이미 기존 법·제도의 틀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유산 보전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만큼 미래유산은 서울이라는 장소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유산이 담고 있는 기억과 감성은 서울이라는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유산은 미래유산의 개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비록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유산의 보전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유산 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보전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는데 있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대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 서울시민이 지역의 명물로서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유·무형의 것 가운데 서울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 ②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 ③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 ④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3.2 미래유산의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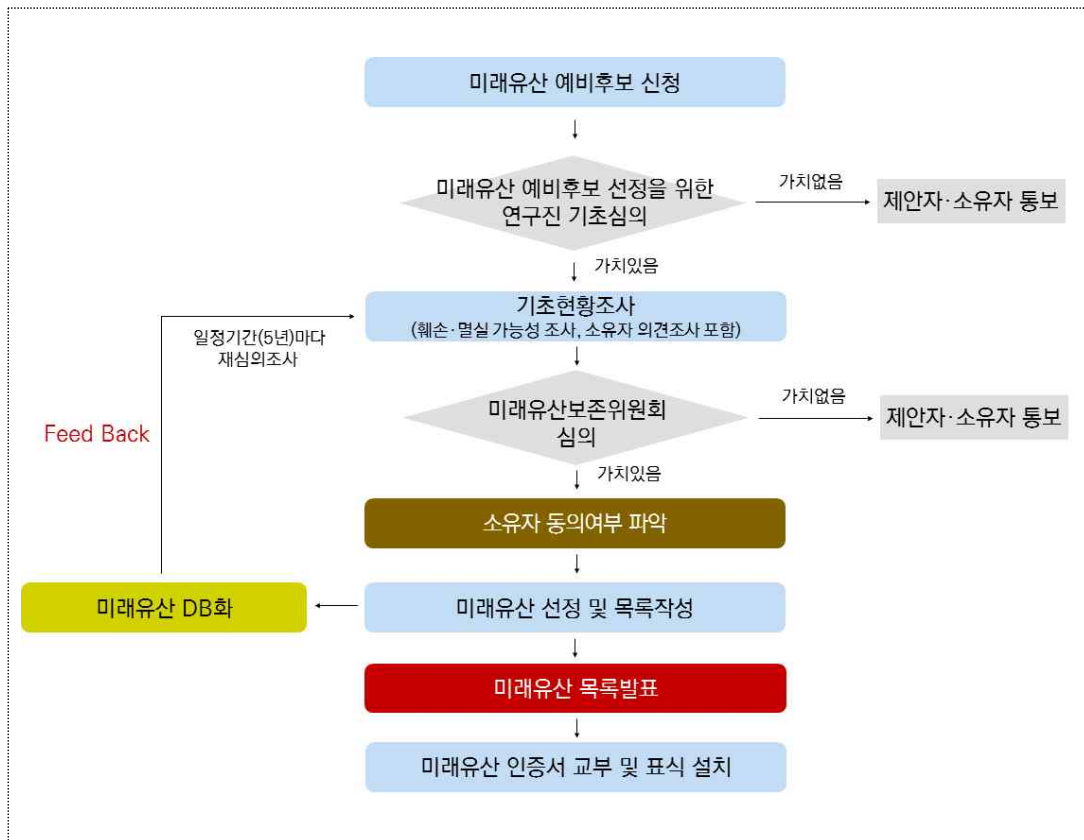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은 시민의 손으로 발굴한 미래유산에서 보전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다.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은 크게 미래유산의 발굴·신청, 조사·심의, 선정·발표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에서 미래유산의 발굴·신청단계는 시민들의 미래유산 보전에 대한 가치공유와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단계이다.

미래유산의 발굴과 신청은 시민주도에 의한 상향식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참여방식을 마련한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래유산의 대상범위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한 분기별 수집방식도 병행함으로써 미래유산 발굴·신청 작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시민에 의하여 발굴·신청된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 및 심의작업을 수행한다. 시민에 의하여 제안된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서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집단기억과 감성을 지닌 것을 선별하기 위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을 심의하고 선정된 미래유산 가운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위기의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미래유산은 미래유산 보전목록에 등재하고 관련정보는 DB화하여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이해와 주도적 참여를 구하고 선정된 미래유산은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울 미래유산으로 최종 확정·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한다.

매년 미래유산의 보전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래유산 보전목록을 조정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유산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미래유산은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을 추진한다. 일정기간(5년)마다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예비후보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재실시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선정여부를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의뢰한다.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절차

3.3 소위원회 운영절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유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5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위원만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미래유산 예비후보의 검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또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전문성이 높은 외부전문가 2~3인으로 미래유산 예비후보의 사전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개최는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심의·선정하는데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심의·선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된 위원은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에게 미래유산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미래유산 예비후보가 검토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진행한다. 한편, 소위원회가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정기준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대표로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내용에 관하여 미래유산을 심의·선정하는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교제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절차

3.4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절차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기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것 가운데 ①물리적인 시설 노후화 또는 도시정비·재생사업 등의 외부위협요인 등으로 인한 보전의 시급성, ②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한 공공 관리의 필요성, ③시민공유자산으로서의 잠재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미래유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신청한 미래유산에 대하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화하도록 한다.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기준]

미래유산 가운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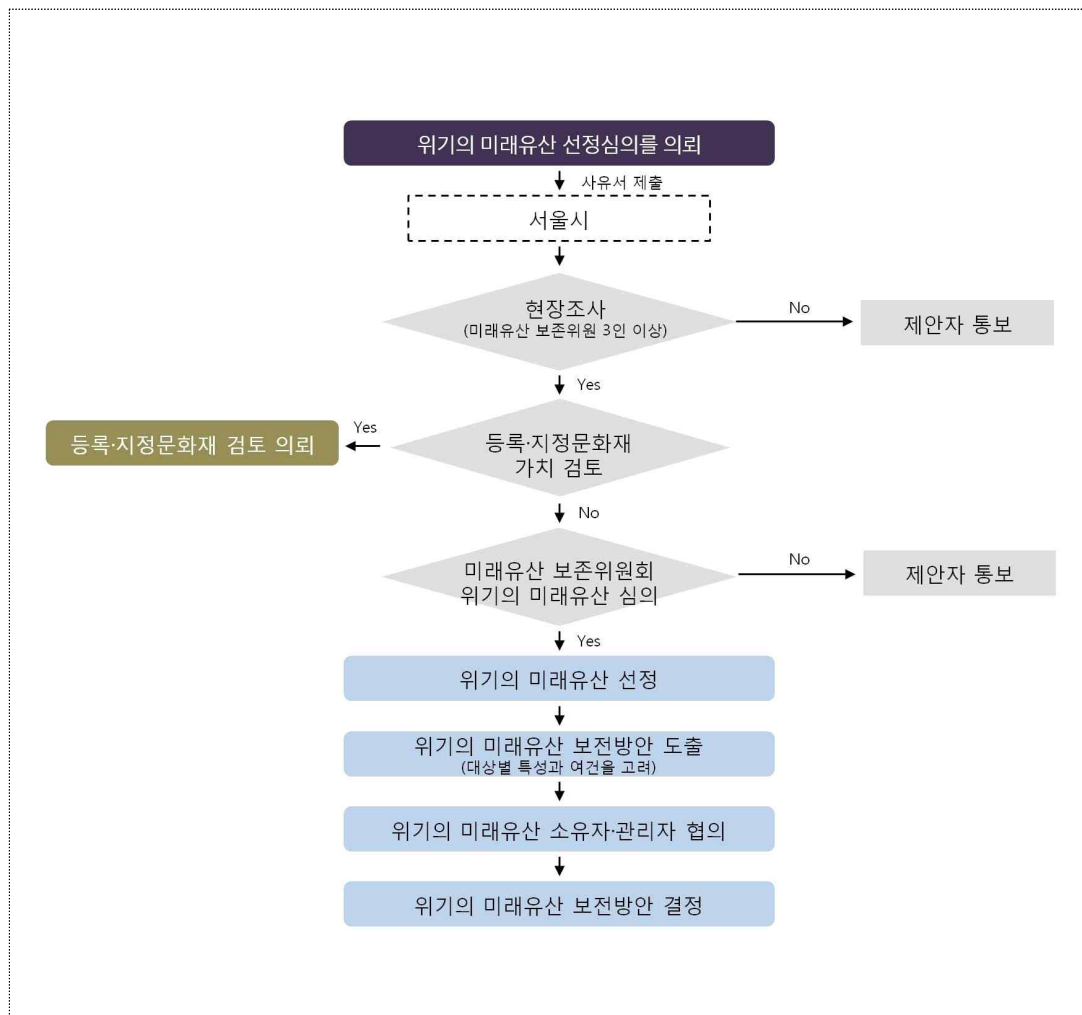
- ① 관리주체가 없어 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적극적인 수리·보수로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데 있어 파급효과가 큰 경우

위기의 미래유산 보전방안 설정

위기의 미래유산에 대한 보전방안은 대상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해법을 사안별로 도출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보전해법은 위기의 미래유산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결정한다.

위기의 미래유산 시민개방

소유자·관리자 협의를 통하여 보전방안이 최종 결정된 위기의 미래유산은 수리·보수의 과정을 거친 후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 및 관리방안 도출 절차



주요 서울 미래유산 지원사업

1. 미래유산 지원사업

1.1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

사업목적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연구 사업은 미래유산 후보군을 발굴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미래유산 선별심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을 미래유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후보군 발굴과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유산 후보군의 발굴·조사과정에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고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있다.

사업내용

미래유산 후보군의 발굴은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한 시민제보, 서울시·자치구의 검토요청,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와 서울연구원의 연구진 제안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미래유산 후보군에 대한 기초현황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조사원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대장 등의 문서열람,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관련자 인터뷰, 관련사료(史料)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현황조사표의 내용을 작성해가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현황조사표는 미래유산의 세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①일반현황, ②보존필요성, ③활용방향, ④현장조사, ⑤소유자(관리자)면담, ⑥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⑦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⑧기타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초현황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소유·관리자 동의를 거쳐 2022년까지 총 505건의 미래유산이 인정되었다. 2013년부터 인정된 미래유산 가운데 7건은 문화재로 등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기념물)가 1건, 국가등록문화재가 3건, 서울시등록문화재가 3건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4건의 미래유산은 우수건축자산으로 중복 선정되기도 하였다.

미래유산 가운데 문화재 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선정된 사례(2013~2021)

사업연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문	문화재(기념물)	1							1
화	국가등록문화재		1		2				3
재	서울시등록문화재						3		3
	우수건축자산				1		3		4
	계	1	1	0	3	0	0	6	11

미래유산으로 인정된 505건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일찍이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도심권(226건), 동북권(76건), 서남권(49건)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미래유산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늦었던 서북권(35건)과 동남권(27건)은 다른 생활권에 비하여 미래유산의 선정 건수가 적은 편이었다.

한편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형상에 따라 미래유산을 유형유산(有形遺産)과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구분하고 유형유산의 경우 ①동산, ②부동산, ③자연물로, 무형유산의 경우 ④생활문화, ⑤예술활동, ⑥자료로 세분류하였다. 형상에 따라 세분류된 미래유산은 ①동산 18건, ②부동산 193건, ③자연물 4건, ④생활문화 205건, ⑤예술활동 81건, ⑥자료 4건로 조사되었다.

사업결과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된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505건의 미래유산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미래유산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작성 매뉴얼』이 작성되면서 조사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되었던 조사내용도 정형화할 수 있었다. 미래유산의 유형도 용도에 따라 48종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서울시민에게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다만, 지금까지의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이 서울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억과 감성의 발굴에만 급급하여 미래유산의 숫자만을 늘려온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미래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목적에는 숨겨진 미래유산의 발굴과 함께 미래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있는바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미래유산의 장르를 보다 다양화하고 복수의 콘텐츠가 문화적으로 상호 융·복합할 수 있는 질적인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미래유산은 주로 오래된 가게나 문학작품 등의 무형유산과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 서울시민에게 잘 알려진 명소와 같은 유형유산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그들만의 콘텐츠로 미래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문화창작소로서 사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1.2 미래유산 홍보사업

사업목적

미래유산 홍보사업은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보전의식을 향상하고자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지속적인 미래유산 보전활동을 독려하고 미래유산 보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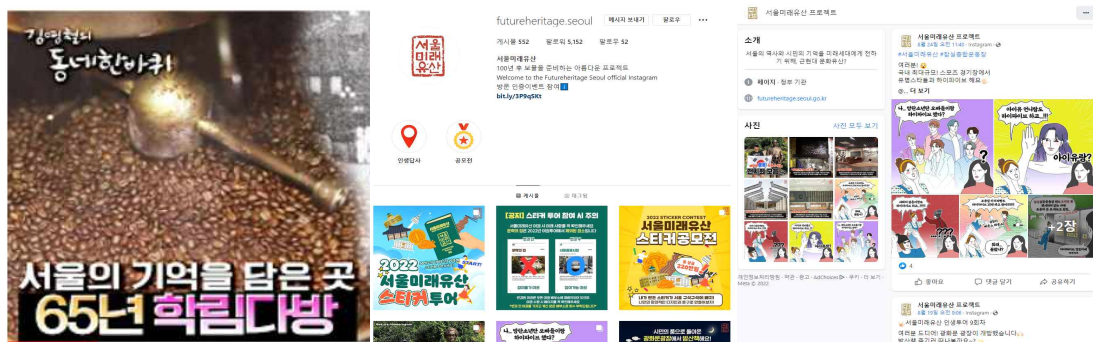
사업내용

미래유산 홍보사업으로 크게 ①영상,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②SNS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콘텐츠 기획관리, ③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였다. ①신문, 뉴스, 방

송, 블로그 등을 통해 영상, 포스터, 일러스트, 웹툰·인포카드, 보도자료 형식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영상은 대부분 러닝타임 10분 내외로, 해설 없이 현장만 촬영한 클립영상, 서울영상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1인칭 촬영(v-log)영상, 전문해설사를 통한 소개영상, 타기관과 협업하여 제작하는 기획영상 등으로 75건이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1박 2일 시즌1 서울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이어가다, 백년의 기억’ 등 지상파 방송국을 통하여 제작된 영상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포스터는 주로 미래유산 답사나 공모전 등 관련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일러스트는 미래유산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46건의 엽서로 제작하였다. 웹툰·인포카드는 서울 시민이 미래유산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0컷의 웹툰이나 짧은 글로 작성하고 보도자료에 400여 건의 미래유산 관련 행사나 소식 등을 담아 언론사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②홍보콘텐츠 기획·관리는 공식 SNS 계정인 페이스북(서울미래유산 프로젝트)과 인스타그램(@futureheritage.seoul),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를 통해 진행되었다. 페이스북은 2012년 개설되어 2022년 현재 팔로워만 1.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도 2017년을 시작으로 영상, 웹툰, 포스터, 인포카드 등의 홍보자료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 등 총 550여 건의 자료를 페이스북과 함께 배포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홍보콘텐츠는 그래픽 매체와 더불어 기록물과 전자파일이 있으며, 자료 유형에 따라 메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미래유산 소개자료, 55건의 작가의 설명글, 15건의 체험코스, 110건의 공모전 수상작은 홈페이지에서만 게시되어 있다. 또한, 체험코스나 언론홍보자료 등 일부 콘텐츠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여 총 12건이 제공되고 있다.

③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이 직접 미래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모전, 답사, 체험, 강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재까지 답사, 체험, 강연 등 161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 투어 영상기록물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는 새로운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유산 홍보 사업을 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기록·관리, 미래유산 인지도 전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과 아이디어 제안이 이루어졌다.



출처: KBS다큐, facebook.com/seoulheritage, instagram.com/futureheritage.seoul
미래유산 홍보(tv교양프로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업결과

서울시는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신문, 뉴스, 방송, SNS, 블로그 등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공모·답사·체험·강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뉴스나 방송용 홍보 프로그램의 경우,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단편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유산 전용 계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다른 영상들과 혼재되어 미래유산에 관한 영상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플레이리스트에 ‘미래유산’ 항목을 신설하여 미래유산에 관한 영상을 모아보기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그룹화하거나 별도의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SNS 전용 계정은 영상 외에도 그래픽 자료 기반의 홍보 콘텐츠를 주 2~3회 게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매체에 비해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접근성이 좋아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홈페이지는 글, 사진, 지도, 전자파일 등 가장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상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나 비주기적·간헐적으로 자료가 배포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주기적인 관리와 최신화가 요구된다. 한편 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은 여러 회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답사 등 특정 장르에만 편중되거나 대중의 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참신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이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와 함께 중장기적 차원의 발전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3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사업

사업목적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사업은 미래유산에 대한 기록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로 학술 목적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자료로 만들어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미래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파악, 자료의 내용을 최신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개별 미래유산의 멸실·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미래유산의 보전관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업내용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사업을 통하여 수집한 개별 미래유산에 대한 조사자료를 크게 ①동영상, ②VR, ③사진, ④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①동영상은 미래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10~15분 정도 길이의 짧은 영상으로, 현재까지 83건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현장 사진과 관련 이미지 등 시각 자료를 추가하여 아카이브하였다. ②VR은 10건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미래유산 주변 10~30여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3D 어라운드뷰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별도의 VR기기 없이도 모니터나 모바일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10건의 미래유산에 대한 영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③사진은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자료와 더불어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거의 이미지로 함께 아카이브하여 미래유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과 분위기를 비

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2,609건의 사진 자료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④ 카드뉴스는 5~10장 내외의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유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로 180건이 제작되어 소개되고 있다.



출처: futureheritage.seoul.go.kr

아카이브 자료 예시(왼쪽부터 동영상, 사진, VR, 카드뉴스)

사업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문서 중심의 아카이브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동영상, VR, 사진, 카드뉴스 등으로 가공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자료의 접근방식이 게시물의 등록일 순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특정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의 명칭을 입력하거나 일일이 게시물을 조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민이 해당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선정연도, 분포지역, 사례유형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자료를 구분하여 위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사례이어도 동영상, 사진, VR, 카드뉴스 등 자료의 형식에 따라 각기 다른 메뉴로 구분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연관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료 검색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매년 실시하는 미래유산 보전관리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미래유산의 멸실·훼손 여부의 확인 정도로만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모니터링 결과가 향후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1.4 미래유산 홈페이지 운영사업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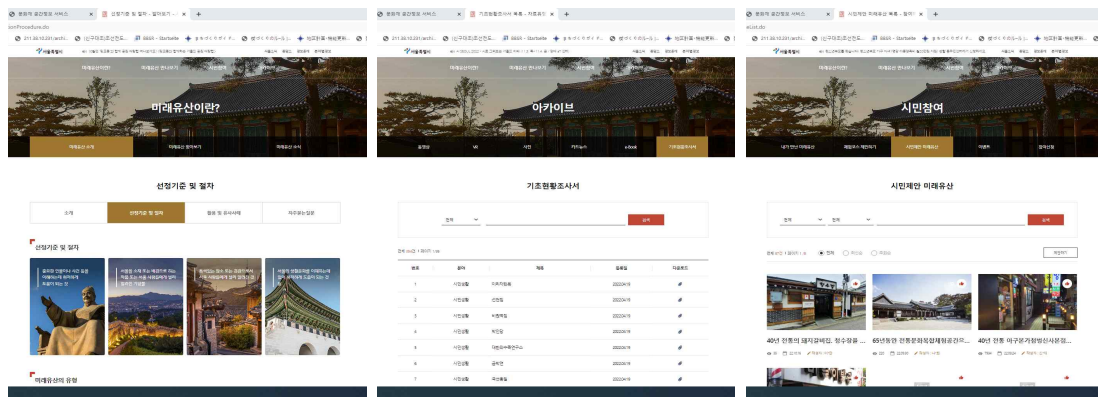
미래유산 홈페이지 운영사업은 미래유산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모바일을 활용한 관련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DB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한 이용환경도 개선하였다.

사업내용

미래유산 홈페이지는 크게 ①미래유산 사업에 대한 소개, ②미래유산 관련 기초현황자료 제공, ③시민참여 의견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미래유산 사업에 대한 소개에서는 미래유산 사업의 추진 배경, 선정기준, 절차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지원혜택, 선정범위, 재산권 제약 여부 등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이용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근현대 유산을 우수하게 활용·관리하고 있는 14건의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미래유산의 활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미래유산 관련 기초현황자료는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을 통하여 작성된 총 354건의 미래유산에 관한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초현황자료에는 미래유산의 일반현황, 보존필요성, 보존·관리현황, 활용현황, 활용방향, 소유·관리자 인터뷰 등의 조사내용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와 언론보도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③시민참여 의견제안에서는 서울시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미래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소회 등을 담은 블로그를 게재하거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미래유산 체험코스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민이 직접 작성한 글과 이미지가 담긴 59건의 미래유산 블로그와 서울시민이 구상하여 제안한 22건의 미래유산 체험코스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의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유산을 추천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직접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85건의 미래유산 후보군이 접수되었으며 매년 실시되는 미래유산 발굴조사를 통하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 futureheritage.seoul.go.kr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

사업결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간략한 사업취지, 선정기준 및 절차, 활용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기초현황자료만으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민이 지역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발굴한 미래유산에 대한 정보와 소감을 게시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은 오직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

별화된 서비스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의 홍보 플랫폼으로서 효과적이었다. 전문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기초현황자료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래유산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시민참여 기능과 더불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부분도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성과였다. 개인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민참여’ 메뉴에 등록한 게시물이나 이벤트 신청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이 개인별로 관심이 있는 미래유산을 저장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즐겨찾기 기능과 같은 이용자 중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5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목적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 및 지속적인 보존·활용을 위해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미래유산을 선정하여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격한 관리를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에 의한 자발적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미래유산의 경우, 도시개발·정비사업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사회변화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멸실·훼손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자발적 보존·활용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유산 본래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매년 반기별로 미래유산의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미래유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소유·관리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미래유산 지속적인 보존·활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유·관리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3년간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의 신청사항과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훼손 정도,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성, 지원의 긴급성 등을 살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지원할 대상과 금액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미래유산에 대한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지원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건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지원금액이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지원 건수도 절반 아래로 감소하였다. 한편 68건의 지원사업 가운데 2년 연속 중복 지원을 받은 사업은 14건이었다.

2018~2021년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소 수 및 지원액

단위: 개소, 천원

연도	분과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총계	평균지원액
2018	개소	3	-	12	3	6	24	12,092
	금액	44,500	-	132,735	45,000	67,966	290,201	
2019	개소	4	-	11	6	4	25	11,971
	금액	60,000	-	122,635	79,899	36,734	299,268	
2020	개소	1	-	4	4	2	11	16,900
	금액	15,000	-	65,440	78,332	27,130	185,902	
2021	개소	1	-	3	2	2	8	16,250
	금액	14,500	-	53,394	23,001	39,105	130,000	
총계	개소	9	-	30	15	14	68	13,314
	금액	134,000	-	374,204	226,232	170,935	905,371	

지원내용은 시설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능 유지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의 소규모 수리 공사와 점포 내부의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였다.

2018~2021년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사내용별·분과별 수혜 개소수

단위: 건

공사내용 분과	총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도시관리	26	1	5		1	5	5	3	3	1		1		1
문화예술	25	2	4		2	2	1	2	7				1	4
정치역사	14	2	3		1		3	1	3		1			
시민생활	64	14	16	1	6	2	2	8	11	1				3
총계	65	5	12	0	4	7	9	6	13	1	1	1	1	5

※ A-목공사, B-미장방수공사, C-석공사, D-도장공사, E-창호공사, F-지붕·판공공사, G-철물공사, H-설비공사,
I-상·하수도 설비공사, J-보링·그라우팅 공사, K-조경식재 공사, L-조경시설물설치공사, M-기타

사업결과

미래유산은 매년 선정되어 현재 총 505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연간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활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운 미래유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소유·관리자의 보존·활용 의지와 자긍심을 고취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목적이 노후시설의 물리적 개선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멸실·훼손 방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사업내용이 대부분이 방수 또는 설비공사 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서울시 소재 미래유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한편, 노후시설의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 사업의 내용을 미래유산의 무형적인 가치 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6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사업목적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미래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미래유산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유산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행사 등의 활동경험, 시민활동가·자원봉사자·전문가 등 인적자원,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을 민간단체가 자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내용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①조사·기록화사업, ②시민홍보·교육사업, ③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21년까지 총 32곳의 단체가 지원을 받아 54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가운데 동일사업으로 여러 해에 걸쳐 복수지원을 받은 단체는 14곳이었다.

①조사·기록화사업은 미래유산에 관한 생활사나 사건·자료 등을 조사하여 영상·사진·문서 등의 형식으로 사료화하는 사업이다. 총 13곳의 단체가 지원을 받아 23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②시민홍보·교육사업은 미래유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이다. 총 15곳의 단체가 지원을 받아 23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③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미래유산을 활용하여 시민대상의 창작극, 추모제, 뮤지컬 등으로 새롭게 기획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4곳의 단체가 지원을 받아 8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추진현황(2013~2021)

사업 유형 (건수)	신청단체(법인)	주요내용	지원연도
조사 기록화 사업 (23)	경기도민문화재단	오래된 동주민센터의 건축적 특징을 도면화, 주민센터에 얹힌 이야기 수집	2013
	(재)김수근문화재단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축 작품에 대한 사진 아카이브 제작	2014/15/16
	문화기획학교	백빈 건널목 주변지역/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음식점에 대한 생활사 기록	2014/15/16/18
	삼일로창고극장	삼일로 창고극장 공연기록 아카이빙	2015
	푸른영상	주요 미래유산에 대한 영상기록화작업	2015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장위동 봉제마을에 대한 생활사 기록 및 홍보사업	2017/18/19
	소셜아트플래툰	영천시장에 대한 생활사 기록	2017
	문화지평	중부·구로·풍물시장에 대한 아카이빙/ 시외역에 위치한 미래유산에 대한 아카이빙	2019/21
	아이뉴스이십사	미래유산으로 인정된 음식점을 중심으로 생활사 기록	2019/20
	통일의 집	문익환·박용길 관련 자료 아카이빙	2019/20
	디피	낙원악기상가에 대한 생활사 기록	2020
	(주)앵커랩	세운4구역 시계 및 귀곡속 산업에 대한 생활사 기록 및 관련 공작물 전시	2021
	(주)마을아카이브	동부4구 지역주민이 수집한 미래유산의 이야기를 아카이브	2021

사업 유형 (건수)	신청단체(법인)	주요내용	지원연도
시민 홍보 교육 (21)	내셔널트러스트	미래유산 소개 및 시민참여를 통한 미래유산발굴/성북동 미래유산체험프로그램 운영	2013/14/17
	궁궐문화원	미래유산도보답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4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충무로 영화거리를 중심으로 도보답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4/15
	이야기경영연구소	미래유산아카데미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회/ 독서회)	2016/17/18
	협동조합 챔터	초등학생 대상, 역사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6
	(사)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노거수를 매개로 한 미래유산 도보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7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일본군 관사를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7
	브러쉬씨어터	북정마을주민과 함께 지역행사 개최	2017
	(주)에스이엔티소프트	탈북자를 위한 미래유산문화답사 프로그램 운영	2018/19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미래유산시민 아카데미	2018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	미래유산청소년 홍보단 운영	2018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2018
	허스토리마실협동조합	초등학생(마포/서대문/은평구) 교육/ 카키오톡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일반시민홍보	2019/21
	(주)스페셜아트	운수좋은날구보씨일일을 소재로 오도보복삼자책잡은책제작 및 농독회인력가꾸어개최	2019/20
	책친구협동조합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미래유산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홍보	2020
문화 콘텐츠 개발 (10)	(재)아름지기	이상의 생일잔치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2013/14/15
	극단진동	윤극영가옥에서 동요를 소재로 유아대상체험 창작극 운영	2016/17/18
	(사)한국춤예술센터	천상병시인 추모제 개최	2019
	(사)늦봄문화기념사업회	문익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	2021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참여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30건으로 이 가운데 성인(21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수가 유아초등(6건)과 청소년(3건)보다도 월등히 많았다. 이외에 마을주민 대상의 사업이 15건, 전문가 7건, 장애인 2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참여대상 건수(2013~2021)

참여대상	일반인			마을주민	장애인	외국인	전문가	계
	유아초등	청소년	성인					
2013			1	1			1	2
2014			3	2			1	5
2015			1	2			3	3
2016	2		1	1			1	4
2017	2		3	3				8
2018	1	2	3	2				8
2019		1	2	3	1		1	7
2020	1		3		1			5
2021			4	1				5
계	6	3	21	15	2		7	47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1년 단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추진된 단발성 사업이 다수(18건)를 차지하였다. 2년간 선정된 사업과 3년간 선정된 사업의 건수는 각각 7건과 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년간 선정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4년부터 3년간 연속 지원을 받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가 2018년에 다시 1년간 지원을 받았다. 이는 공모사업에서 동일사업으로 연속 3년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복수선정건수(2013~2021)

지원연수	1년	2년	3년	4년	계
선정건수	18	7	6	1	32

사업결과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미래유산 보존·활용의 영역을 민간부문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정형화되면서 민간단체의 창의적 역량을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에 도입하고자 하였던 당초 사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미래유산 보존위원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전문가 선별의 어려움과 공모사업의 예산 문제로 선정 이후에는 사업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없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① 조사·기록화사업, ②시민홍보·교육사업, ③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구분된 공모사업에서 부분별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수사업의 노하우를 발표회를 통하여 공모사업의 참가자와 공유함으로써 사업내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결과를 진단하고 차기 공모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모사업의 유형에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미래유산 관련 정책의 방향이 양적 확산에서 질적 성숙으로 선회되면서 자유주제로만 진행되던 현행의 공모방식에, 특정 미래유산의 새로운 보존·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지정주제 공모방식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 계획의 틀에서 민간단체가 사업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년도 연차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모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여서 선정된 사업 가운데 단발성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아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거나 참여를 독려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3년 계획의 틀 속에서 연차사업 형식으로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매년 사업내용을 심의하여 연속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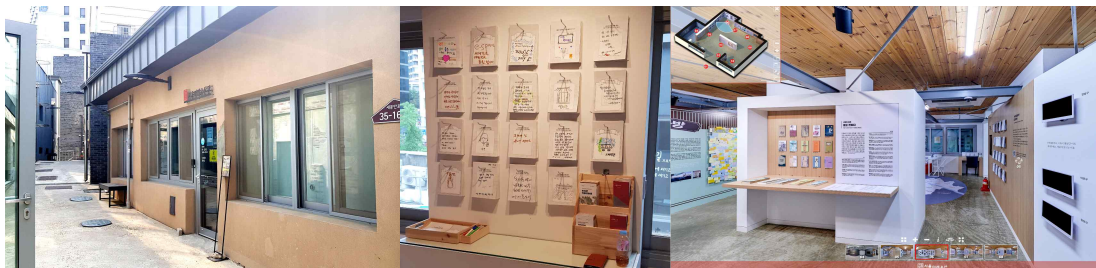
1.7 미래유산 홍보관 운영사업

사업목적

돈의문박물관마을 내에 위치한 서울 미래유산 홍보관(서울 미래유산관)에서는 근현대 서울의 잊혀진 시대상을 재현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즐겨 찾던 대표적인 미래유산을 알리고 세대 간의 간직하고 있는 서울의 시대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한편 미래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주제를 바꾸어 상설 전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내용

서울 미래유산 홍보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번의 전시가 열렸다. 2019년에는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박태원의 중편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주제로 삼았다. 소설 속 주인공이 하루 동안 배회한 당시 경성의 모습을 재현하여 관람객이 구보씨의 관점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였다. 2020년에는 '서울의 휴일'이라는 주제로 1960년~1980년대 서울 시내의 유명 영화관, 다방, 유원지, 체육시설 등 서울시민이 당시 휴일에 즐겨 찾던 대표적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다. 한편 2021년에는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무형유산 가운데 대중가요와 영화, 문학 작품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서울시민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거주지 주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미래유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미래유산 홍보관 전경과 시민참여 코너, 온라인 VR서비스

홍보관 한편에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 미래유산 홍보관의 방문 소감을 적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유산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참여 코너를 마련하였다. 시민참여 코너를 통하여 공유한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수집된 추천 유산은 미래유산의 정책 방향 개선이나 신규 미래유산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활동이 제한되었던 코로나 19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유산 홈페이지에 홍보관에 대한 VR자료를 게재하였다. 홍보관의 각 지점에서 전시보드와 전시공간을 3D 어라운드뷰로 촬영하여 서울시민이 온라인으로 서울 미래유산 홍보관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결과

미래유산 홍보관은 미래유산의 홍보거점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미래유산의 취지를 알리고 주제별로 미래유산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은 수집하여 미래유산의 신규 발굴과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대면 관람방식인 VR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부 전시패널의 경우 글씨가 작아 읽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외곽부의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여 일부 전시물의 형태를 온전히 관찰할 수 없었던 단점도 있었다. 이에 VR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패널의 설명자료와 전시물에 대한 개별 이미지/영상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래유산 홍보관의 비대면 관람방식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미래유산의 홍보대상을 서울시민을 포함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상설전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미래유산 관련 문화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기획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유산 관련 관광문화상품도 함께 판매함으로써 서울 각지의 미래유산을 연계하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종합형 앵커시설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위기의 미래유산 지원사업

2.1 삼일로 창고극장

개요

1975년 5월 ‘에저또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삼일로 창고극장은 삼일로 고개에 위치한 2층 가정집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같은 해 12월 재정난으로 폐관된 에저또 창고극장을 정신과 의사 유석진 씨가 인수하여, 1976년 4월 ‘삼일로 창고극장’이란 이름으로 재개관하였다. 1977년 추송웅 씨가 연출한 ‘빨간 피터의 고백’이 연일 매진이 되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삼일로 창고극장은 1인극과 실험극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1983년 운영난으로 폐관된 삼일로 창고극장을 추송웅 씨가 인수하여 ‘떼아뜨르 추 삼일로’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였지만, 1985년 추송웅 씨의 사망으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고 1987~1990년까지 극단 로얄씨어터의 전용소극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김치공장, 인쇄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1998년 극단 창작마을이 임대하여 ‘명동 창고극장’으로 재개관하였다. 하지만 2003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극장은 다시 폐관되었고 이듬해 공연음악 작곡가

인 정대경 씨가 다시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이 되었다.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운영을 이어오던 삼일로 창고극장은 2013년에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후원이 끊기었고 운영이 어려워진 창고극장은 2015년 10월 다시 폐관되었다.



미래유산 선정 당시의 창고극장(좌, 중), 공공실험극장으로 재개관한 창고극장(우)

문제점

① 수익성 낮은 공연 레파토리

삼일로 창고극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상업극보다는 실험극 위주의 공연을 계속해왔다. 홍보 및 초대권 발송 등을 통하여 객석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렸지만, 순수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신규 관객 유입에 실패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

② 소유주의 미래유산 선정 철회

2013년 10월 삼일로 창고극장의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뒤늦게 미래유산 선정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임대료가 체불된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미래유산 선정으로 인한 세제 혜택 지원이나 건축물의 가치상승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건물주는 미래유산 선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2014년 미래유산 선정에서 취소되었다.

③ 제도적 한계로 인한 공공극장으로의 전환 실패

2015년 4월, 서울시는 삼일로 창고극장을 공공극장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건물주 및 운영자와 협의하였다. 하지만 공공이 소유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민간 소극장의 명맥이 끊긴다는 점과 관련법에 의하여 기존 운영진에게 관리운영을 지속적으로 위탁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삼일로 창고극장 측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의가 중단되었다.

서울시의 지원내용

삼일로 창고극장은 수익보다는 예술성을 중시한 실험적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부족 등으로 관객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폐관되었다. 2017년 서울시는 국내 첫 민간소극장인 삼일로 창고극장의 연극사적인 가치를 다시 이어가기 위하여 창고극장을 공공 실험극장으로 재개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물주로부터 창고극장을 월세로 10년간 장기 임차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삼일로 창고극장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삼일로 창고극장을 이들이 운영하는 남산예술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극장 전반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시설물은 서울시가 지원했다. 보수공사를 거쳐 2018년에 재개관한 삼일로 창고극장은 외부전문가 5인과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1인(당연직, 부서장)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공동운영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최대 3년(지정임기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이며, 중도 사퇴자 발생 시 공모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

2.2 체부동 성결교회(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개요

1920년 기도실로 시작해 교인들의 모금으로 1931년에 건립된 체부동 성결교회(現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는 당시 서울에서 흔치 않은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대공간이 조성되었고 이후 증축과정에서 영국식 벽돌쌓기가 도입되어 시기별로 서로 상이한 근대의 벽돌쌓기 방식이 공존하는 건물로 건축사적 보전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또한 천정고를 높이기 위한 목재 시저스 트러스 구조의 지붕과 1930년대 민가에서 볼 수 있었던 꽃담 등 근대 건축양식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동측벽에는 신축 당시 남녀를 내외하기 위하여 조성된 출입구 2개소의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종교탄압으로 강제해산 당하고 빵공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지만, 해방 후에는 다시 종교시설로 원래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었다.

2000년 복촌 가꾸기로 시작된 서울시의 적극적인 한옥진흥정책에 따라 경복궁 서측 한옥밀집지역의 도시경관과 문화환경이 개선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방문객이 찾게 되자 지역시장인 금천교시장의 상권이 주변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교회 인근의 주거용 한옥이 투자자에게 매각되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소규모 상업시설로 전환되었다. 상권 발달로 인한 주거기능의 쇠퇴와 상업시설의 임대료 상승은 기존 주민 또는 상인의 이주로 이어졌고 증가하는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는 조용한 종교활동을 원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로 성결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교회는 재정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체부동 성결교회 전경 및 교회와 연결된 한옥(좌), 개관 당시 체부홀 내부(중), 신축한 금오재(우)

문제점

① 현행 법·제도상의 이유로 리모델링을 통한 원형 보전에 제약 발생

2015년 교회 건물의 보전을 조건으로 해당 건물을 주민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서울시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매입한 당시의 성결교회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록과는 달리 불법 증축으로 총 사용면적이 10배나 차이가 났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건축법·제도를 적용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에 건폐율, 건축선 지정, 주차장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건물 외벽의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목회자의 사택과 교인들의 위한 식당으로 사용되었던 한옥은 외형적으로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예배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교회 건물과 연결하기 위하여 기둥 일부가 제거되거나 벽체가 신설되는 등 구조적으로 많이 변형된 상태였다.

서울시의 지원내용

2015년 성결교회를 매입한 서울시는 이듬해 성결교회의 건축사적, 생활사적 보전가치를 인정하여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미래유산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문화정책과가 성결교회의 리모델링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으로 인한 리모델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1931년 준공 이후 행하여진 불법 증축으로 변화된 현재의 모습은 현행 건축법·제도 아래에서 정하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외벽의 철거나 일부 구조의 훼손이 불가피하였다.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제도에서 정하는 건폐율, 대지의 조경, 건축선 지정, 주차장 설치, 건축설비 등의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이에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관련 법령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건축자산을 담당하는 한옥조성과의 협조를 얻어 2017년 3월 성결교회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여 성결교회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다. 한편, 성결교회의 부속건물로 사용되었던 한옥의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대신 기존에 사용되었던 벽돌과 지붕의 기와를 재사용하는 등 기존 건물의 분위기를 살려 신축하였다.

2018년 주민시설로 리모델링한 체부동 성결교회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로 개관하였다. 과거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던 공간은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공연 및 생활예술 동호회의 연습을 위한 ‘체부홀’이 되었고 목회자의 사택과 교인들의 식당으로 활용되었던 한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및 세미나 공간인 ‘금오재’라 불리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5명의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체부동 성결교회의 역사를 반영하여 금오재라 이름 지었다.

2.3 공씨책방

개요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공씨책방은 공진석이 1972년에 개업한 우리나라 1세대 헌책방으로 현재는 처제인 최성장과 처조카인 장화민이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노점상으로

책장사를 시작한 공진석은 경희대 근처에서 ‘대학서점’이란 이름으로 헌책방을 개업하였고, 1980년대에는 헌책의 본거지였던 청계천을 거쳐 새문안교회 맞은편에 이주하면서 책방의 이름을 자신의 성씨를 따라 ‘공씨책방’으로 바꾸었다. 당시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박상률, 정호승, 이문재 시인이 책방에서 독서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나운영 작곡가 등 예술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이후 광화문 일대 재개발로 인해 1995년에 대학교가 몰려 있는 신촌 대로변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헌책방의 경쟁력 약화와 2017년 건물주와의 임대료 분쟁으로 폐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출처: 성동구청(우)

미래유산 선정 당시의 공씨책방(좌), 임대료 분쟁으로 이전한 공씨책방(중), 성동안심상가에 연 성수동 분점(우)

문제점

① 임대료 증가와 계약갱신 실패로 인한 이전

공씨책방은 임대차 계약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8월 당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는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1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건물주는 건물을 매각하였고, 공씨책방은 새로 바뀐 건물주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건물주로부터 이전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후 공씨책방의 이전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의 벌인 법정 공방은 건물주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② 대형 중고서점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공씨책방이 위치한 신촌과 합정지역에 유명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중고서점이 들어서면서 공씨책방을 비롯한 영세한 중고서점을 찾는 고객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이전 요청을 받게 되어 이주가 불가피하였다. 결국 공씨책방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장소에서 30m가량 떨어진 건물의 지하로 점포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이전한 장소가 협소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수만 권에 이르는 책을 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의 지원내용

서울시는 미래유산의 보전을 위해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 기업이 하나의 미래유산에 대해 보수비, 주변환경 정비, 모니터링, 후원 등을 지원하는 ‘1사(社) 1유산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타주제조협회가 공씨책방의 후원기업으로 매칭되어 공씨책방

의 이주비와 약 2년간 임대료 3,600만 원을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지원하게 되면서 공씨책방은 폐점 위기에서 벗어나 인근 건물로 이전할 수 있었다.

한편, 공씨책방은 이전한 건물은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수만 권에 이르는 책을 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추가로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8년 성동구청의 도움으로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성동안심상가’에 분점을 열게 되었다. 성동안심상가는 성동구가 ㈜부영주택과 사회공헌 MOU를 체결하여 기부받은 공간으로, 공씨책방은 이 공간을 계약금·권리금 없이 5년간 임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분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씨책방은 ‘서울책보고’ 서비스를 통해 대형 중고서점에 대항한 온라인 판매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10년간 방치되어 있던 물류창고를 활용하여 2019년에 개관한 ‘서울책보고’에서는 공씨책방을 비롯한 기존의 헌책방들과 연계하여 온라인 서적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책과 관련된 테마 전시와 북콘서트 등 복합문화행사도 열어 헌책방을 홍보하고 있다.

2.4 딜쿠샤

개요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하는 ‘딜쿠샤’는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의 별칭으로, 미국 출신의 무역업자이면서 한국으로 특파된 연합통신 기자였던 앨버트 테일러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하여 1923년에 지은 콜로니얼 양식의 벽돌 건물이다. 전체면적이 623.76㎡에 이르는 지상 2층의 건물로 건립 당시 서울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서양식 주택이었다. 또한 딜쿠샤는 일반적인 벽돌 건물과는 다르게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공동벽 세워쌓기’로 지어져 보온, 방습, 방음 등에 있어 유리하였다. 특히 딜쿠샤의 ‘공동벽 쌓기’는 일반적인 두 겹 방식이 아닌 세 겹 쌓기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근대건축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방식으로 지어졌다.

앨버트 테일러는 3.1운동과 독립선언서를 가장 먼저 해외에 타전하였고 제암리학살사건과 독립운동가의 재판 등을 취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일가는 태평양 전쟁으로 미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1942년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었다. 한동안 주인이 없었던 딜쿠샤는 해방 후 조정규가 소유하고 있다가 1963년 그가 부정 축재자로 지목되어 재산이 몰수되면서 국유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딜쿠샤에 거주하던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딜쿠샤의 노후화와 훼손이 심화되었다.

2000년대 방치된 딜쿠샤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내력이 알려지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당시 딜쿠샤의 무단점유자들은 거주권을 받아 입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하지 않으려 했고, 관리기관이었던 기획재정부는 이들이 이주 명령에 불응한다면 명도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강경한 태도였다. 하지만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이주가 강제로 집행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할 우려가 있었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중, 우)

복원이전의 딜쿠샤 전경(좌), 재현한 1층과 2층 거실내부(중, 우)

문제점

① 불법무단점유에 따른 등록문화재 지정 지연

2006년 앨버트 테일러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 딜쿠샤가 앨버트 테일러의 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딜쿠샤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딜쿠샤에 거주하고 있던 무단점유자들의 반발로 다시 유보되었다. 유보된 배경에는 딜쿠샤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문화재 복원 비용과 복원을 위한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비용 등을 문화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종로구가 서울시에 딜쿠샤를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재청에서도 그동안 서울시가 요청해왔던 등록문화재 등록 대신 서울시에 딜쿠샤의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을 권고하였다. 결국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2014년 딜쿠샤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인정되었다.

② 잦은 소유권 양도와 관리 부재로 노후화 심각

국유화된 이후 딜쿠샤의 소유권은 1963년 국세청을 거쳐 1985년 재무부, 1995년 경찰청, 2001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 잦은 소유권 이양으로 꾸준한 관리가 어려웠고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노후와 훼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6년 앨버트 테일러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 딜쿠샤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었지만, 이후 딜쿠샤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문화재청의 유보로 건물의 관리가 방치되면서 2015년 건물 안전진단 검사 결과 D등급을 받아 위험시설로 분류되었다.

③ 소유권 양도 문제로 인한 서울시와 기재부간의 갈등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문제로 등록문화재 등록이 장기간 유보되면서 건물의 노후와 훼손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서서 기재부와 딜쿠샤의 소유권 이양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딜쿠샤의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서울시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거절하는 기재부 간의 합의점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였다. 당시 서울시의 무상양도 제안에 대해 기재부는 딜쿠샤를 서울시의 재산 중 등가의 자산과 교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시가 무상양도에 대한 요구를 바꾸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서울시의 지원내용

딜쿠샤의 수리 복원과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논의는 2001년부터 서울시,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종로구 간의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시설 안전과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2012년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 외관과 함께 조사가 가능한 일부 내부공간에 대한 실측도 작성, 사진 촬영 등 기록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소유권 양도에 대한 기재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복원 비용 30억 원,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한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비용과 갈등 관리 비용 31.5억 원을 부담하고 2019년까지 딜쿠샤의 복원을 완료하겠다는 조건으로 2016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 업무 협약의 체결 배경에는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2014년 딜쿠샤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면서 그 보전가치가 시민사회에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2015년 자산관리공사가 발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서울시가 소유권을 이양받은 후에는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고, 문화재청에서도 서울시와 관리·복원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2017년 마침내 딜쿠샤가 등록문화재 제687호로 등록되었다. 2018년 시작된 딜쿠샤 복원 공사는 테일러 가에서 기증한 유물과 사료들을 바탕으로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에까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1~2층의 거실은 남아 있는 사진 등을 근거로 앨버트 테일러와 그의 가족이 살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나머지 공간은 테일러 부부의 생활상과 앨버트 테일러의 언론 활동 등을 주제로 한 전시실로 조성되었다. 2021년 3월 1일에 맞추어 개관한 딜쿠샤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1. 2022년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1.1 추진과정

미래유산 예비후보 발굴

2022년 01월 이후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한 시민제보(8건), 자치구 제안(2건), 전문가 추천(10건), 연구진 발굴(57건), 지난해 보류안건(9건), 미동의 미래유산 재검토(26건) 등을 통하여 112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발굴하였다. 이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담당부서(미래유산팀)의 기초 심의를 거쳐 선별된 29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상정되었다.(정치역사분과 4건, 시민생활분과 9건, 도시관리분과 15건, 문화예술분과 1건)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기초심의를 통과한 29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는 조사원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대장 등의 문서열람,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관련자 인터뷰, 관련사료(史料)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현황조사표의 내용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현황조사표는 크게 ①일반현황, ②보존필요성, ③활용방향, ④현장조사, ⑤소유자(관리자)면담, ⑥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⑦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⑧기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미래유산의 선정

2022년 11월~12월까지 서울 미래유산 선정심의회와 분과별 세부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5개 분과별로 각각 1차례씩 진행되었던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9건의 예비후보가 최종 선정되었다.(정치역사분과 1건, 시민생활분과 2건, 도시관리분과 6건) 미래유산의 선별은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결정한 세부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래유산 분과위원회 개최내용

분과	일시	검토내용
정치역사	11.18.(14:00~16:00)	을축대홍수기념비, 공산망굴 , 경희궁 방공호,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산업노동	12.02.(09:30~11:30)	-
시민생활	12.02.(14:00~16:00)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이태원 동물병원, 교보문고 , 명동교자 , 홍능갈비, 무교동 낙동강, 무교동 유정낙지, 오구반점, 동양방앗간
도시관리	12.07.(14:00~16:00)	평산재 , 제일은행 합정동지점, 국민대학교 중강당및 실내체육관, 영풍빌딩, 압구정성당, 잠실성당,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태화빌딩, 상명대 자연과학대학 대학관, 신아빌딩, 구 서산부인과 의원 , 그랜드워커힐호텔본관 , 그랜드워커힐호텔명월관 , 그랜드워커힐호텔피자힐 , 그랜드워커힐호텔더글라스하우스
문화예술	12.07.(09:30~11:30)	이성부 옛 가옥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래유산은 굵은 글씨로 표기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명단

분과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정치역사	최윤철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박현숙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유석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정재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지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관
산업노동	표정훈	평론가	변용찬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주하연	서강대학교 경제학전공 부교수
	최동욱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김하나	서울대학교 BK사업단 연수원연구원
시민생활	고종원	국회 하원의원실 선임비서관	황보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장
	이현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유삼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혜미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황혜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도시관리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석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조현정	문도건축유산보존연구소 소장
	김태형	재단법인 목천문화재단 팀장	김정현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문화예술	나선화	前 문화재청장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동경원	무용이론연구자
	배소연	연풍예술단 대표	이재정	문화예술 스타트업 디타임 대표

※ 분과위원장은 음영처리



2022년 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미래유산 분과위원회 개최(문화예술분과, 도시관리분과)

소유·관리자 동의를 거쳐 24건의 미래유산이 최종 확정

2022년 12월,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별된 미래유산(9건)의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미래유산 선정동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소유·관리자로부터 미래유산 선정동의를 얻은 4건의 미래유산이 2022년 미래유산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정치역사분과 1건, 시민생활분과 2건, 도시관리분과 1건)

분과별 세부선정기준

[정치역사분과]

-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는 표석설치, 지도표시의 수준에서 정리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위원회에서 결정)
- 동상, 탑, 기념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선정
- 분묘의 경우, 가옥에 비해 보존의 중요도가 낮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에는 논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래유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산업노동분과]

- 개별건조물보다는 산업활동 간의 상호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 개별건조물의 경우, 서울의 도시산업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건조물을 선정
- 공산품의 경우,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닌 것을 선정
- 산업노동사적인 가치가 모호한 동상, 탑, 기념물의 경우,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선정
- 서울의 산업화와 노동현실을 다룬 문학작품의 경우, 미래유산 자료(신설)로 분류하여 관리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시민생활분과]

-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연도가 40년 이전인 소매업종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켰을 경우에 선정
 - ①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
 - ② 가업전승 여부, 장소의 연속성 유지, 독특한 이야기거리, 상호의 변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 집합주택의 경우,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가운데 최초 또는 시대별 주거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선정
- 특화거리·시장의 경우, 형성된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가운데 독특한 지역 경관과 가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상호 메커니즘이 생활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리를 선정.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시장이나 상업가로는 제외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도시관리분과]

-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된 건조물로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켰을 경우에 선정
 - ① 근대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는 건조물
 - ② 멸실·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것
- 서울의 도시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또는 흔적을 선정
- 건축거장의 건축물의 경우, 시대별 대표작 또는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

[문화예술분과]

-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는 표석설치, 지도표시의 수준에서 정리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위원회에서 결정)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주요한 인물의 가옥이나 작업공간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선정하되 인물당 미래유산의 선정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
 - ① 서울에서 삶의 주요시기를 보낸 인물로 사후 20년이 되었거나 193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 ② 작품제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소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작품의 경우,
 - ① 음악·문예·연극·영화·판토마임·무용·대중예술 등의 경우, 무형의 예술적 가치만을 판단하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물당 최대 2개까지로 한정하여 선정
 - 사후 20년이 되었거나 1935년 이전에 출생한 감독·작가의 작품
 - 작품이 제작·출간된지 40년 이상 된 작품
 - 전반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 당시 서울의 생활상이나 주요 장소적 특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
 - ② 회화·조각·공예품 등의 경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작된 유형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장소나 건조물의 경우,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1.2 미래유산의 선정해지 및 명칭변경

2022년 재개발이나 폐업으로 인한 멸실, 이전 등으로 선정이 해지된 미래유산은 총 5건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선정이 해지된 미래유산의 형상을 바탕으로 유형유산(有形遺産)과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구분하고 유형유산의 경우 동산·부동산·자연물로, 무형유산의 경우 생활문화·예술활동·기타자료로 다시 세분류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2년 선정이 해지된 미래유산 가운데 유형유산이 1건, 무형유산이 4건으로 조사되었다. 유형유산의 경우, 부동산인 가산문화센터(옛 공단복지관)가 재개발되어 G밸리 창업복지센터로 새로이 개관하였다. 한편 무형유산 가운데 미래유산이 해지된 사례는 생활문화인 대성관, 성진한의원, 통솔집이 폐업, 홍성균한의원이 경기도로 자리를 옮기면서 미래유산에서 해지되었다.

소유·관리자의 요청으로 미래유산의 명칭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경동시장이 서울약령시, 망우리공원묘지가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바이오허브(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DB산업은행(구 삼일로빌딩)이 31빌딩(구 삼일로빌딩)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22년 미래유산 선정해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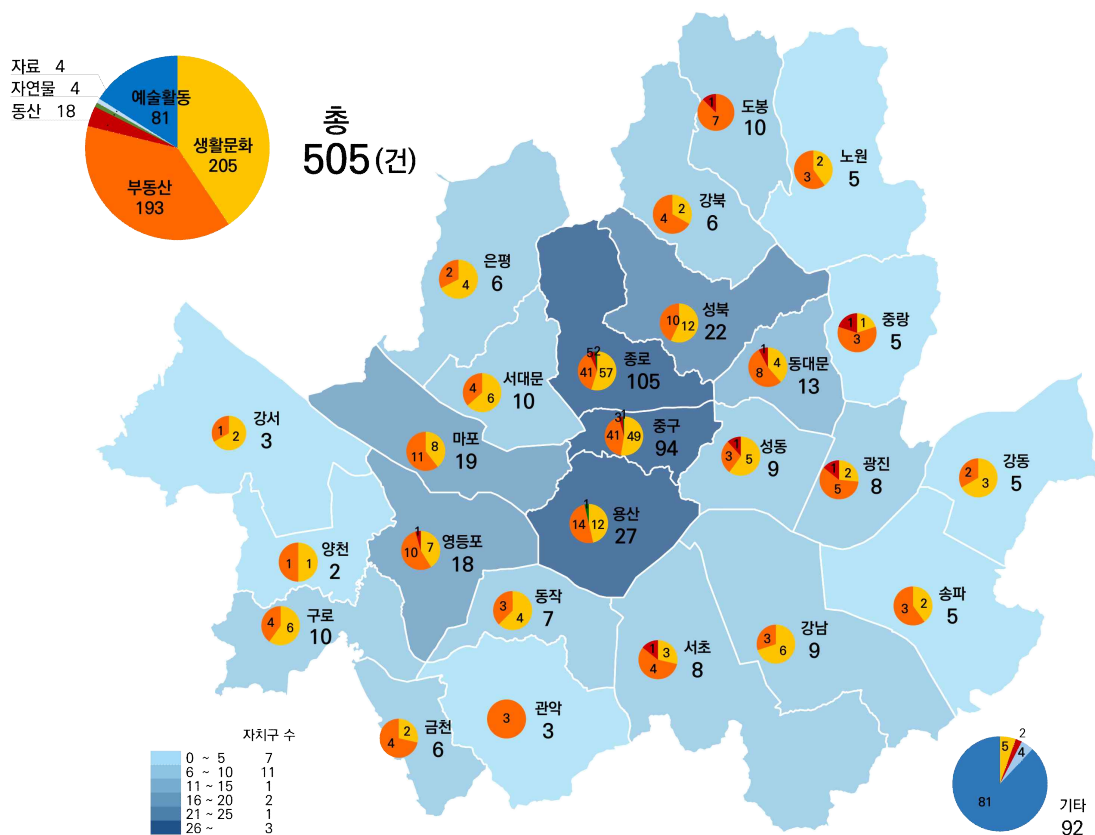
구분	유형	개수	미래유산
유형	동산	멸실	-
		선정취소	-
		문화재등재	-
	부동산	멸실	가산문화센터(옛 공단복지관)
		선정취소	-
		문화재 등재	-
	자연물	멸실	-
		선정취소	-
무형	생활문화	멸실	대성관, 성진한의원, 통솔집
		이전	홍성균한의원
		선정취소	-
	예술활동	멸실	-
		선정취소	-
	자료	멸실	-
		선정취소	-

2. 미래유산 선정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2022년까지 선정된 505건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았다. 일찍이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도심권(226건), 동북권(76건), 서남권(49건)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미래유산이 분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늦었던 서북권(35건)과 동남권(27건)의 경우, 다른 생활권에 비하여 미래유산의 선정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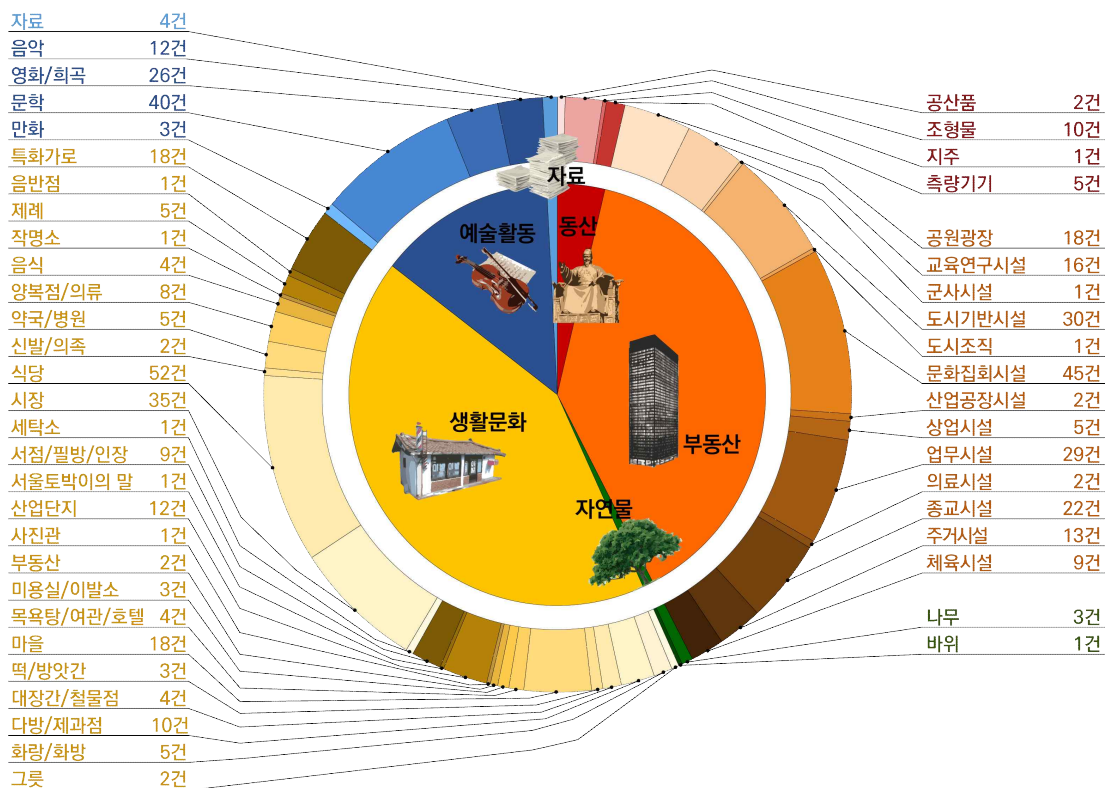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에 가장 많은 105건의 미래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로구와 함께 도심권을 형성하는 중구와 용산구에 각각 94건과 27건의 미래유산이 분포하여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도심권에서는 성북구에 22건, 마포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19건과 18건의 미래유산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 선정항목

2013~2022년 선정된 505건의 미래유산의 형상을 바탕으로 유형유산(有形遺産)과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구분하고 유형유산의 경우 ①동산, ②부동산, ③자연물로, 무형유산의 경우 ④생활문화, 예술활동, 기타자료로 세분류하였다. 형상에 따라 세분류된 미래유산으로 다시 용도에 따라 ①동산 4종, ②부동산 13종, ③자연물 2종, ④생활문화 24종, ⑤예술활동 4종, ⑥자료 1종으로 구분하였다.

①동산의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항목 가운데 조형물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부동산의 경우에는 문화·집회시설(45건), 도시기반시설(30건), 업무시설(29건), 종교시설(22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③자연물에서는 나무(3건)가 ④생활문화의 경우에는 식당(52건)이 선정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식당을 이어 생활문화에서 가장 많이 집계된 항목은 시장(35건), 특화가로(18건), 마을(18건), 산업단지(12건)이었다. 한편 ⑤예술활동에서는 문학이 40건으로 선정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세부 유형별 선정항목(2022)

3. 분과별 미래유산 선정목록

2013~2022년 선정된 505건의 미래유산에 대한 분과별 선정목록을 정리하였다. 미래유산 선정목록의 선정사유는 분과별 선정기준의 특성에 맞추어 기술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초현황조사표에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첨부한 서울 미래유산 분포도의 경우, 미래유산 선정목록의 관리번호의 연번에 따라 미래유산의 위치를 표기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분과: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 형태: 유형, 무형, 공원·광장, 생활문화
- 용도: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체육시설, 주거시설, 공원광장휴게시설,
산업공장시설,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기타시설
- 소유: 국·공유, 사유

3.1 정치역사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01	국립 4·19민주묘지	강북구	4.19민주화운동의 희생자 199위를 안장한 묘지로 대한민국 민주이념의 성지이자 민주화운동의 산교육장	가-03
A.002	문익환 가옥 (통일의 집)	강북구	민주화통일운동에 힘썼던 문익환 목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으로 대한민국 민주화통일운동의 현장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띤 공간	가-03
A.004	함석헌 가옥	도봉구	‘한국의 간디’로 일컬어질 만큼 국민의 인권 향상에 힘쓴 민권운동가 함석헌이 말년을 보낸 장소	가-04
A.005	국립서울현충원	동작구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명예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	다-03
A.006	상암동 일본군 관사	마포구	1930년대 일제시대 일본군 경성사단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세운 일본군 장교용 관사이며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네거티브 유산	나-02
A.007	연희 104고지 전적지	서대문구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장소	나-02
A.008	길상사 (구 대원각)	성북구	1960~1980년대 국민 접대와 정치 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쳐온 군사정부시절 요정(料亭)정치의 상징	나-03
A.009	삼청각	성북구	1970~1980년대 국민 접대와 정치 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쳐 온 군사정부시절 요정(料亭)정치의 상징	나-03
A.010	갈산대삼각본점	양천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된 대삼각본점으로 서울시 수도지적의 기준이 되는 곳	다-02
A.011	국회의사당	영등포구	1975년부터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상징	나-02
A.012	만남의광장	영등포구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이 범국민적인 형태로 진행된 장소로써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가족들의 상봉이 현실화된 장소	나-02
A.013	여의도 지하벙커	영등포구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후 국가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하 벙커	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14	영등포산업선교회 · 성문밖교회	영등포구	6·24 투쟁 2주년 계승실천 대회, 서울지역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위원회 발족식 등이 개최된 현장으로써 1970~1980년대 대한민 국 노동운동 및 집회의 중심지	나-02
A.016	서울역광장	용산구	사이토 총독 저격사건, 서울역 화근, 6·26 국민평화대행진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 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장소. '민족 대이동' 이라 표현되는 귀성·귀경길의 중심지로 서 울시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장소	상세-다-01
A.018	국무총리공관 청사	종로구	조선시대 태화궁(太和宮)의 터. 1961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 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의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	상세-가-02
A.019	김성수 가옥	종로구	2·8 독립선언, 3·1 운동 준비 등을 위해 모인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일제강점기와 해 방 전후 시대의 명암이 함께 존재하는 역사 적인 공간	상세-가-03
A.02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로구	경제기획원, 문화체육관광부(전 문화공보부) 가 있었던 건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문 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장소	상세-나-02
A.021	도로원표 (청경기념비전 내)	종로구	1914년 설치된 도로의 기점·종점 또는 경 과지를 표시하는 표지석	상세-나-02
A.022	서울의 중심점 표지석	종로구	1395년 한양의 중앙지점을 알리는 표지석 이 설치되었던 자리에 1896년 고종황제가 서울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 해 설치한 표지석	상세-나-03
A.024	청와대	종로구	대한민국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건물	상세-가-02
A.025	한국기독교회관	종로구	목요기도회 개최, 김의기 열사 투신 사건 등이 발생한 곳으로써 한국현대사의 '민주화 의 성지'라고 불리는 장소	상세-나-04
A.026	한울샼	종로구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아픔을 치유하고 상징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의 쉼 터이자 본부	상세-나-05
A.027	1·21사태 소나무	종로구	1·21사태 당시 치열했던 교전의 흔적인 15 발의 총탄자국이 남아있는 소나무로 대한민 국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소	나-03
A.028	4·19혁명기념도서관	종로구	4·19 혁명의 숭고한 이념과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알리고자 이기봉 부통령의 집터 위 에 세워진 도서관	상세-나-01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29	서울유스호스텔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군)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본관 건물	상세-다-03
A.030	구서울시청 남산별관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군)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제5별관 건물	상세-다-03
A.031	문학의집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군)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장들의 관저	상세-다-03
A.034	서울소방재난본부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군)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사무동 건물	상세-다-03
A.035	서울종합방재센터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군)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제6별관 건물. 지하취조실이 있던 장소	상세-다-03
A.037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정리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군	다-05
A.038	상동교회 (구 새로나백화점)	중구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획한 역사적인 현장이며 전덕기 목사 외 최석모, 오화영, 이필주, 신석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며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던 장소	상세-다-02
A.039	서울광장	중구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현장이자 시민들의 집회, 행사, 축제 등이 일어나는 서울의 상징적 장소	상세-나-02
A.040	오장동 서울제일교회	중구	종교적 박해를 피해 북한에서 온 실향민들의 정착에 힘쓴 교회. 반유신운동의 진원지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중심지	상세-다-04
A.041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중구	1912년 세워진 화교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	상세-나-01
A.042	한국은행 앞 광장	중구	일제강점기 금융의 중심지이자 '3.1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현장	상세-다-02
A.043	한양공원 비	중구	1910년 남산에 조성된 한양공원의 비석. 건립 당시 고종황제가 헌액한 친필 등이 남아 있어 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조형물	상세-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44	YWCA 건물	중구	계몽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복지운동, 평화운동 등을 펼쳐온 한국의 기독교 여성 단체 본부가 있는 곳이자 YWCA위장결혼식 사건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던 역사적인 장소	상세-다-03
A.045	용마산대삼각본점	종로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된 대삼각본점으로 서울시 수도지적의 기준이 되는 곳	나-04
A.105	방호연막탄 지주(13개)	종로구	1968년 1.21사태 이후 청와대 방호와 군사작전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상세-가-02
A.107	구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중구	1923년 지어진 조적조 건물로 일제 강점기 초등학교 시설의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는 건축물	상세-나-04
A.301	걸스카우트 회관	종로구	1969년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으로 강조되며 지어진 스카우트 연맹건물	상세-나-03
A.302	대전차방호시설	도봉구	1950년 6·25 전쟁 시 만든 군사 시설로 위는 아파트 형태로 아래는 방호시설로 지어짐	가-04
A.401	김영삼 가옥	동작구	김영삼 전 대통령이 46년간 머무른 사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담겨진 공간이며 투쟁의 과정에서 남겨진 사료를 보관하고 있는 공간	다-03
A.402	도로원표 (태평로1가)	중구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며, 해외 도시와 서울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	상세-나-02
A.403	서울경찰기마대	성동구	1946년 발족된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기마대로 현재 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들이 '서울경찰기마대'로 명맥을 이어옴	나-04
A.404	이관 가옥	종로구	독립운동가 이관이 3.1 만세운동 당시 거주하던 가옥으로 당시의 도시형 한옥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	상세-가-03
A.701	홍릉숲	동대문구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묘역이었던 곳이자, 한국 최초의 1세대 수목원	나-04
A.901	공산땅굴	강서구	1940년대 지역민을 강제동원하여 군사용으로 굴착하였으나 해방과 더불어 공사가 중단. 6.25전쟁 당시에는 지역민의 피난처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	나-01

3.2 산업노동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02	강변테크노마트	광진구	1998년 전자·전기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복합쇼핑몰로 건립된 서울 동부권의 전자·전기 유통센터. 국내 최초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한국 벤처기업의 요람	나-04
B.003	구의취수장	광진구	도시화로 인하여 증가된 취수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1976년 조성된 취수시설로 1970년대 산업건축물의 발전상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	나-05
B.004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구	198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으로 건립되어 5만 여종의 산업용품을 취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품 유통 전문상가	다-02
B.005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영등포공단)	구로구	1970~1971년 도심에 산재해 있는 기계공장들을 집산화, 협동화, 전문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민간공업단지의 효시	다-01
B.006	이명래 고약공장	구로구	1970년대 이명래 고약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던 장소이자 이명래의 막내딸인 이용재 여사가 직접 고약을 만들었던 공장	다-01
B.007	이명래 고약	구로구	1906년 한의사 이명래가 프랑스 선교사로 부터 서양 약학을 배워 만든 화농성 종기치료제. 사람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한 국내 최초의 상표로 기록된 의약품	다-01
B.008	한국수출국가 산업단지 (구로공단)	구로구	1965~1973년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 봉제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 수출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단지로서 한국 경제 성장의 산 증거	다-02
B.009	이마트 창동점	도봉구	1993년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할인마트. 유통구조의 변화, 가격파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장소	가-04
B.010	서울약령시	동대문구	1960년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인삼 중심의 약재 특화시장	나-04
B.011	황학동 만물시장	중구	한국전쟁 직후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만물시장으로 아직까지 그 모습이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나-04
B.012	노량진 수산시장	동작구	1971년 개장한 서울의 대표적인 수산물 교역장	다-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13	사당동 가구거리	동작구	1970년대 형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가구점 밀집 거리로써 가구와 관련된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	다-03
B.014	서울화력발전소 (당인리발전소)	마포구	1930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 발전소로써 수도권 전력보급과 근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발전소. 국내 최초의 열병합 발전으로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당해오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	나-02
B.015	석유비축기지	마포구	유사시 서울지역의 안정적인 유류(油類) 공급을 위해서 1978년 건립된 석유비축시설	나-02
B.016	선통물천 (마포하수터널)	마포구	현재까지 하수 및 우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인공하천	나-03
B.017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초구	1976년 설립 이후 버스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버스터미널	다-03
B.018	양재동 화훼유통상가	서초구	1991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공영 화훼도매시장	다-04
B.019	현인가구단지	서초구	1980~1990년대 가구생산공장과 가구판매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	다-04
B.020	구두제조업 (성수동일대)	성동구	원재료 판매점에서부터 제조공장까지 수제화 관련 업체들이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지역	나-04
B.021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1963년 개장하여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육류 유통전문시장.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에 있어 유서가 깊고 영향력이 있는 축산물시장	나-04
B.022	의복제조업 (장위동 일대)	성북구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 클러스터로 198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봉제공장 밀집지역	나-04
B.023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송파구	1985년 개장한 서울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다-05
B.024	1차 금속제조업 (문래동 영단주택 일대)	영등포구	1940년대 영등포 공업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영단주택이 건립되고 1980년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도심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금속 제조업체 밀집지역이 형성	다-02
B.025	OB맥주 담근술	영등포구	쇼와기린맥주(동양맥주전신, 1933년 설립) 때 제작되어 1996년까지 맥주 제조용으로 사용한 담근술	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26	한국증권거래소	영등포구	유가증권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추기관으로 여의도일대 증권가가 설립되는 계기가 곳	나-02
B.027-1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2,13동, 17,18,19,20동)	용산구	1987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컴퓨터, 전자, 전기 관련 상품 유통 전문 상권	나-03
B.027-2	용산전자상가 (선인상가21,22동)	용산구		나-03
B.027-3	용산전자상가 (원효전자상가)	용산구		나-03
B.028	관수동 명패골목	종로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휘장업체 밀집지역, 휘장, 명패, 상패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휘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골목	상세-나-03
B.029	광장시장	종로구	1905년 일제강점기 경제국권회복의 취지에서 설립된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한복 및 포목 전문 도매시장	상세-나-04
B.030	귀금속 제조업 (종로일대)	종로구	1960~1970년대 귀금속 상점과 보석세공 전문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귀금속 제조업체 밀집지역	상세-나-03
B.031	낙원악기상가	종로구	우리나라 주상복합건물의 초기형태로 1970년부터 악기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가. 악기 및 음악에 관한 제품과 정보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장소	상세-나-03
B.032-1	동대문종합시장 (A·B·C동)	종로구	1970년 이후 원단류, 의류부자재, 액세서리, 혼수용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도·소매시장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전문시장	상세-나-05
B.032-2	동대문종합시장(D동)	종로구		상세-나-05
B.033	서울대학병원	종로구	194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통합되어 설립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서 의료근대화의 산실이며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선도해온 곳. 우리나라 의학역사의 상징	상세-가-04
B.034	창신동 봉제마을	종로구	동대문 의류제조업의 배후 클러스터로 1970년대 창신동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봉제공장 밀집지역. 현재까지도 객공(客工)의 형태가 남아있는 한국형 근현대 산업노동의 현장	상세-나-05
B.035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1958년 환자 진료 및 의료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스칸디나비아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지원으로 건립된 공공의료원	상세-나-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36	남대문시장	중구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전통시장	상세-다-02
B.037	동대문패션타운	중구	1998년 이후 의류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는 도·소매시장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의류전문 쇼핑타운	상세-나-05
B.038	동화약품 건물	중구	1897년 동화약방에서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이자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의 본부가 있는 곳.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 '활명수'를 개발한 곳으로 한국 제약 산업의 산역사	상세-다-01
B.039	동화약품 활명수	중구	1897년 궁중 선전관 민병호가 궁중비방에 서양의학을 접목해 만든 적갈색의 액체 소화제, 국내 최장수 의약품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신약	상세-다-01
B.040	방산시장	중구	1976년 개장한 종이 관련 특화시장으로 포장 원자재 공급, 특수인쇄, 제품포장, 가공까지 분야·공급별 완제품 생산·공급이 가능한 특수인쇄 및 포장재료 산업의 메카	상세-나-04
B.041	서울풍물시장	동대문구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시장. 우리 고유의 정서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시장으로 보전가치가 높음	나-04
B.042	신중부시장	중구	1959년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어물 전통시장	상세-나-04
B.043	염천교 구두거리	중구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구두 제작 및 판매 전문거리	상세-다-01
B.045	전태일 분신장소	중구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던 곳.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신호탄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	상세-나-05
B.046	충무로 인쇄골목	중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쇄업체 밀집지역. 현재까지도 서울의 많은 인쇄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인쇄산업의 메카	상세-다-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47-1	평화시장	중구	실향민들에 의해 형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전문도매시장	상세-나-05
B.047-2	신평화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3	청평화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4	제일평화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5	광희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6	에리어식스	중구		상세-나-05
B.101	항동철도	구로구	1959년 조성되어 오류동역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간 산업화물을 수송하는 단선 철도	다-01
B.102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구	구로역 및 가산디지털단지역(옛 가리봉역)과 함께 구로공단을 대표하는 역	다-02
B.103	구로역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및 가산디지털단지역(옛 가리봉역)과 함께 구로공단을 대표하는 역	다-02
B.104	가산디지털단지역 (옛 가리봉역)	금천구	1968년 무역박람회를 위해 설치된 간이역	다-02
B.105	수출의 다리	금천구	1970년에 건립된 고가도로로 구로공단 지역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해 경부선 철도 위에 건설	다-02
B.106	가리봉시장	구로구	구로공단의 배후지로서 주요 고객이었던 공단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졌던 시장	다-02
B.108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순이의집)	금천구	1970~80년대 공단노동자들의 숙소였던 '닭장집(별집)'을 재현한 공간으로서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	다-02
B.301	구로시장	구로구	1960년대부터 형성된 구로의 대표적 재래시장	다-02
B.302	디지털단지로거리	금천구	구로공단 시절 공장, 별집, 가리봉 시장, 야학 등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 현장을 이어주는 중심지	다-02
B.303	을지로 조명거리	중구	6.25 전쟁 이후 무너진 도시 재건을 위해 집수리에 관한 상점 등이 열기설기 자리 잡으며 급속도로 발전한 조명상점 밀집 지역	상세-나-03
B.304	입정동 철공소골목	중구	소형 철강소와 정밀 가공업체, 금형 가공업체가 뿔뿔이 들어서면서 중공업 중시하던 1970~80년대 성업했던 지역	상세-나-04
B.701	종로5가 약국거리	종로구	1950년대 말 개업한 보령약국을 기점으로 현대식 약국 거리가 형성	상세-나-04
B.702	을지로 미싱 특화 거리	중구	동대문 일대의 의류제조업을 배후로 1960년대 형성된 미싱 관련업종 밀집거리	상세-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703	퇴계로 오토바이 거리	중구	1970년대 형성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체 밀집지역	상세-다-04
B.801	신설동2호선 비영업승강장	동대문구	1974년 건립되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폐쇄된 지하철 역사	나-04
B.80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역사관	성북구	1970년대 만들어진 산업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근현대 기술품을 전시해놓은 박물관	나-04

3.3 시민생활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01	한일관	강남구	1939년 개업하여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갈비 전문 식당	나-04
C.002	허바허바사진관	강남구	1959년경 개업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진관. 약혼·취업증명·가족 사진을 찍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추억의 사진관	다-04
C.003	삼각산재미난마을	강북구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등 자녀양육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마을목수공작단, 마을밴드 JnB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마을	가-03
C.004	축백나무제	구로구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내려오는 마을고유의 전통제례	다-02
C.005	동흥관	금천구	1950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식당	다-02
C.010	마포진짜원조최대포	마포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돼지갈비 전문 식당	나-03
C.011	성미산마을	마포구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등 자녀양육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성미산마을극장, 공방, 마을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마을	나-02
C.012	성우이용원	마포구	1927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발소	나-03
C.013	역전회관	마포구	1962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바싹불고기 전문 식당	나-03
C.014	연남서식당	마포구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소갈비 전문 식당	나-03
C.015	공씨책방	서대문구	1972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헌책방	나-02
C.016	영천시장	서대문구	19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떡 도매시장	나-03
C.017	홍익문고	서대문구	196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점	나-03
C.018	성수목욕탕	성동구	1967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21	태조감자국	성북구	1958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감자국 전문 식당	나-03
C.022	일광방앗간	송파구	1965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방앗간	다-05
C.023	부여집	영등포구	194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꼬리곰탕과 족탕 전문 식당	나-02
C.024	삼거리먼지막순대국	영등포구	195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순대국 전문 식당	다-02
C.025	수정여관	영등포구	196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여관	다-02
C.028	성의사	용산구	1953년 개업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가운 판매점	나-03
C.030	원삼탕	용산구	1966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나-03
C.031	불광대장간	은평구	1963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대장간)	나-02
C.032	구하산방	종로구	1913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필방	상세-나-03
C.033	김봉수 작명소	종로구	1958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명소	상세-나-01
C.034	낙원떡집	종로구	1912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떡집	상세-나-03
C.036-1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A동)	종로구	1970년 개장한 신발을 주요 품목으로 한 서울 유일의 도매시장	상세-나-05
C.036-2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B동)	종로구		상세-나-05
C.036-3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C동)	종로구		상세-나-05
C.037	동대문생선구이골목	종로구	연탄화덕에 굽는 생선구이 전문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골목	상세-나-05
C.038	동양서림	종로구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서점	상세-가-04
C.041	문화이용원	종로구	1940년대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발소	상세-가-04
C.042	보령약국	종로구	1957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약국. 용각산, 구심, 겔포스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약품판매점의 대형화를 시도한 곳으로 종로5가 약국거리 일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약국	상세-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43	생명의 말씀사	종로구	1953년 개업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서점	상세-나-01
C.045	수도약국	종로구	194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약국	상세-나-03
C.046	열차집	종로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빈대떡 전문 식당	상세-나-02
C.047	이문설농탕	종로구	1904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설농탕 전문 식당	상세-나-02
C.049	진아춘	종로구	1925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중식당	상세-가-04
C.050	청진옥	종로구	193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해장국 전문 식당	상세-나-02
C.051	통문관	종로구	1934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점	상세-나-02
C.052	풍년철물	종로구	1969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	나-03
C.053	피맛골	종로구	조선시대부터 선술집·국밥집·색주가 등 술집과 음식점이 형성된 골목으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장소	상세-나-03
C.055	고려삼계탕	중구	196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삼계탕 전문 식당	상세-다-01
C.057	남산 범바위	중구	예로부터 시민들의 굿터로 이용되었던 곳	상세-다-03
C.058	청계천 한책방거리	종로구	1960년대 청계천 복개 공사로 노점식으로 운영되던 한책방들이 평화시장 일대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한책방 밀집지역. 신학기철만 되면 교과서부터 참고서, 영어 원서, 사전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장소	상세-나-05
C.059	라 칸티나	중구	1967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양식당	상세-나-02
C.060	마살미용실(본점)	중구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	상세-다-03
C.062	무교동 북어국집	중구	1968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북어국 전문 식당	상세-나-02
C.063	문화옥	중구	195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설렁탕 전문 식당	상세-나-04
C.064	신당동 떡볶이 골목	중구	떡볶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이 특화되어 있는 골목	상세-다-05
C.065	안동장	중구	1948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식당	상세-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66	오장동함흥냉면	중구	1958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냉면 전문 식당	상세-다-04
C.067	용금옥	중구	193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추어탕 전문 식당	상세-나-02
C.068	우래옥	중구	194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냉면 전문 식당	상세-나-04
C.069	은호식당	중구	193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꼬리곰탕 전문 식당	상세-다-02
C.070	장충동 족발골목	중구	족발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이 특화되어 있는 골목	상세-다-05
C.072	종로양복점	중구	1916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양복점	상세-나-03
C.073	진주회관	중구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콩국수 전문 식당	상세-다-02
C.074	한영양복점	중구	193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양복점	다-03
C.075	해창양복점	중구	1945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양복점	상세-다-02
C.076	망우역사문화공원	종량구	서울시 관할구역 내의 유일한 공동묘지형 공원묘원이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활동했던 저명한 인사들의 묘를 살펴볼 수 있는 산 교육장	나-05
C.103	초가집	강북구	1960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정식 전문 식당	가-03
C.104	환영크리닝	강서구	1949년에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탁소	나-01
C.105	동제한의원	광진구	1963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원	나-04
C.106	마포옥	마포구	1949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나-03
C.108	독다방 (구 독수리다방)	서대문구	1971년 개업하여 2005년 휴업 후 2013년 같은 장소에서 재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커피전문점	나-03
C.110	미아리 점성촌	성북구	1960년대 맹인 점성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점성촌	나-04
C.111	금성부동산	영등포구	1970년에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나-03
C.113	미진	종로구	1954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메밀 전문 식당	상세-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114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종로구	197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커피전문점	상세-가-02
C.115	신영부동산	종로구	1968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상세-가-02
C.116	원조 할머니 떡볶이	종로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떡볶이 전문 식당	상세-가-01
C.117	유일한의원	종로구	194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원	상세-나-05
C.118	유진식당	종로구	1968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평양식 냉면, 국밥 전문 식당	상세-나-03
C.119	청일집	종로구	194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녹두빈대떡 전문 식당	상세-나-02
C.122	부민옥	중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해장국 전문 식당	상세-나-02
C.123	산골막국수	중구	1962년 개업하여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막국수 전문 식당	상세-나-04
C.124	송림수제화	중구	193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구두가게	상세-나-03
C.125	유림면	중구	1960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메밀국수, 우동 전문 식당	상세-다-02
C.201	영동 스넥카	강남구	1972년경 이동식 식당으로 개업하여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으로 여의도, 강남 개발 당시의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는 식당	다-04
C.202	노옥당 약업사	강동구	1975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약재 판매점	나-05
C.203	동명대장간	강동구	1930년대 말에 개업하여 약 7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는 재래식 대장간	나-05
C.204	십자성마을	강동구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 상이군인의 수용을 위해 조성된 마을 공동체	나-05
C.206	서북면옥	광진구	1968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냉면 전문점	나-04
C.207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활발히 사용하는 도심 공원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과거의 모습과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장소	나-04
C.210	청량리 청과물시장	동대문구	1958년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서울의 대표적인 청과물시장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211	노랑진 학원가	동작구	70년대 대입 및 편입준비 학원가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 중심의 특화지역	다-03
C.212	장승제	동작구	공동체적 풍습과 전통의 맥을 잇는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다-03
C.213	미네르바	서대문구	1975년 신촌 일대에서 처음으로 개업한 원두커피 전문점으로, 70년대 신촌 대학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장소	나-03
C.215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성동구	1979년에 형성된 전국에서 가장 큰 중고차 판매시장	나-04
C.216	배발골 산신제	성북구	예로부터 전래되는 마을의 고유 제례 행사로,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나-03
C.217	북정마을	성북구	한양도성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역사문화경관이 남아있는 마을	나-03
C.218	성북동 국시집	성북구	1969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칼국수 전문 식당	나-03
C.219	석촌호수	송파구	호수로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심공원	다-05
C.220	대문점	영등포구	1968년 개업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는 오형장육 전문 식당	나-02
C.221	이태원 앤티크 가구거리	용산구	1960년대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던 미군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처분한 중고 가구를 매매하면서 형성된 가로	나-03
C.222	포린북스토어	용산구	1973년부터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원서 헌책방	나-03
C.223	해방촌 108계단	용산구	일제강점기 때 조성된 석재 계단으로, 1960~70년대 해방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	나-03
C.224	청기와양복점	은평구	197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맞춤형 양복점	나-02
C.225	형제대장간	은평구	1976년 개업 이후 일정기간 폐업을 했지만 1997년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	나-02
C.226	우정총국 회화나무	종로구	갑신정변의 현장이었던 우정총국 일대의 풍경을 형성하였던 나무	상세-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227	통인시장	종로구	도시락 카페, 각 점포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전시 등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재래시장	상세-가-01
C.228	헌법재판소	종로구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고기관	상세-가-03
C.229	을지로 노가리 골목	중구	1980년대 형성된 노가리 전문 골목으로, 노가리와 맥주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먹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장소	상세-나-03
C.230	동부고려제과	중랑구	1974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베이커리	나-04
C.301	독일빵집	서대문구	1952년 개업하여 5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베이커리 브랜드	나-02
C.302	만리시장	용산구	1968년경 용산구의 만리고개에 형성된 전통시장	나-03
C.303	보신각타종	종로구	1919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타종행사로 현재는 3.1절, 광복절 등과 같은 국가기념일과 연말 행사를 대표적으로 진행함	상세-나-02
C.304	서울장수막걸리	서울	서울탁주에서 제조하며 서울지역의 대표 막걸리 브랜드	다-05
C.305	선잠제향	성북구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고려·조선 시대에 행하여지다가 대한제국 말에 중단된 것을 1993년부터 성북동 선잠단지에서 재현해 오고 있음	나-03
C.306	설령탕	서울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넣고 푹끓인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으로 서울에서 생겨난 음식	다-05
C.307	쌍다리식당	성북구	1970년 기사식당으로 출발한 연탄불구이 돼지 불백 전문점으로 창업자의 대를 이어 자녀가 2대째 운영 중	나-03
C.308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강남구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형성된 택시 운전기사들을 위한 식당이 밀집한 거리	나-02
C.309	창성옥	용산구	70년 전통의 해장국 전문점으로 일제 강점기 창업 이후 창업주 할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건물주 부부가 3대째 운영중인 음식점	나-03
C.311	한신옹기	용산구	1967년 개업하여 50여 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며 해방촌의 명물이 된 옹기집	나-03
C.401	경성백승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 행정구역별로 명물을 선정하여 연재한 기사를 모아 출판한 도서로 당시 경성시민의 시대에 대한 인식과 명물의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음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402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종로구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법과대학이 위치했던 장소. 198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문화공원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상세-가-04
C.403	림스치킨	종로구	1977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 치킨가게	상세-가-04
C.404	명동 화교거리	중구	임오군란을 계기로 이곳에 자리 잡은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 조성된 상업지역으로 중국 화교들의 문화와 상점, 음식점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리	상세-다-02
C.405	선린중고교 나무	용산구	최초의 관립 상공학교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1899년 고종황제가 하사한 기념식수	나-03
C.406	왕십리 대도식당	성동구	1954년 개업한 한우등심구이 전문점. 2010년 주식회사 키친보리에 인수되었으나 고유의 요리방법은 지금도 유지	나-04
C.407	청룡열차	광진구	우리나라의 첫 테마파크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1973년 설치되어 운행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롤러코스터	나-04
C.501	나폴레옹 과자점	성북구	1968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과점. 200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	나-03
C.601	옛날집 낙원아귀찜	종로구	1977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 운영 중인 아귀찜 가게로 종로3가 낙원동 아귀찜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아귀찜 가게	상세-나-03
C.602	원대구탕	용산구	1979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 운영 중인 대구탕 가게로, 삼각지 대구탕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대구탕 가게	나-03
C.603	불고기(너비아니)	-	조선시대 반가조리서에 등장하는, 서울 반가에서 많이 해 먹던 고기구이 음식으로, 이후 불고기로 진화하여 대표적인 서울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	다-05
C.604	구절판	-	아홉 개의 칸으로 나뉜 그릇에 채소·고기류 등 여덟 가지를 담고, 가운데 담긴 밀전병에 싸 먹는 음식. 조선요리법(1939년)에 소개되어 있고, 서울의 한정식 요리점에서 선보이며 서울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	다-05
C.605	조선요리법	-	1939년에 발간된 서울 반가음식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서술한 조리서로 당시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책. 서울음식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울음식 조리법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701	호미화방	마포구	197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화방	나-02
C.702	국선옷칠	종로구	197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옷공방	상세-나-04
C.703	금박연	종로구	1856년 조선시대 철종 때부터 5대에 걸친 가업을 이어가며 운영 중인 공방	상세-가-03
C.704	대한의수족연구소	종로구	1979년 개업하여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수족 제작업체	상세-나-04
C.705	박인당	종로구	1978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인장포(印章鋪)	상세-나-02
C.706	비원떡집	종로구	1949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가 함께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궁중떡 전문집	상세-나-02
C.707	선천집	종로구	1971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전통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	상세-나-03
C.708	이리자한복	종로구	1966년 개점하여 3대가 함께 운영 중인 한복 판매 및 한복 전시 업소	상세-가-02
C.709	부루의 뜨락	중구	1978년에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음반가게	상세-다-02
C.710	사보이 호텔	중구	1957년 국내 최초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어 같은 장소에서 3대째 운영되고 있는 호텔	상세-다-03
C.712	순흥옥	중구	1945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에 걸쳐 운영 중인 한식당	상세-나-04
C.713	스카라가발	중구	197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발 전문점	상세-다-03
C.714	오장동 흥남집	중구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운영하고 있는 함흥냉면집	상세-다-04
C.715	웅태행	중구	193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상세-다-02
C.716	잼배옥	중구	193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상세-다-02
C.717	중림장	중구	1972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운영 중인 설렁탕 전문점	상세-다-01
C.718	평래옥	중구	195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운영 중인 냉면/초계탕 판매점	상세-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801	김용기 과자점	강서구	1965년 개업하여 2대째 운영 중인 센베이 전문점	나-01
C.802	소라분식	노원구	1971년 개업하여 3대째 운영 중인 분식집	가-04
C.803	복성각 마포본점	마포구	1953년 개업하여 2대째 경영 중인 중국식당	나-03
C.804	소문난 개미집	양천구	1944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운영 중인 매운탕 전문점	나-02
C.805	견지동 불교용품거리	종로구	1970년대 조성된 조계사 입구 양쪽 도로에 위치한 불교용품 테마거리	상세-나-02
C.806	무계원	종로구	1953년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로 개업한 오진암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축 복원한 한옥	나-03
C.901	명동교자 본점	종로구	1970년 명동에서 개업하여 2대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칼국수, 만두 전문점	상세-다-03
C.902	교보문고 광화문점	종구	1981년 신용호가 설립한 서점 프랜차이즈로 대자본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서점이자 최대 규모의 서점	상세-나-02

3.4 도시관리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01	화계사 대방	강북구	1866년 용선(龍船)과 범운(梵雲)이 흥선대원군의 시주로 중수한 한식목조, 팔작지붕의 대방으로 조선말기 사찰건축을 대표하는 새로운 불전 형식(대방건축)의 하나	가-03
D.002	서울대학교 예술관	관악구	1980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지형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물로 이후 캠퍼스 계획을 정립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다-03
D.003	경춘선 폐철도노선	노원구	1939년 조성된 성북역과 화랑대역 사이의 경춘선 노선. 2006년 경춘선 직선화사업으로 폐철도노선이 될 때까지 67년간 철도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철로	가-04
D.004	백사마을	노원구	1967년 청계고가도로 건설 등을 위해 무허가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제 이주한 철거민들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 판자집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서울의 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주민의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장소	가-04
D.006	덕성여대 자연관	도봉구	197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1979년 제1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을 응용하여 캠퍼스 건축 시리즈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4
D.007	덕성여대 예술관	도봉구	1982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을 응용하여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3
D.008	덕성여대 도서관	도봉구	198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을 응용하여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3
D.009	서울바이오허브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구	1981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교육연구시설로 1981년 제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인간적, 한국적인 재료에 대한 해답으로 붉은 벽돌을 사용해 지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10	서울시립대 경농관	동대문구	1937년 지어진 조적조의 학교 건축물로 전형적인 일제시대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 조적조의 벽체, 목조 트러스 지붕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	나-04
D.011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동대문구	1937년 지어진 학교 건축물로 페디먼트 형식의 파사드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4
D.012	제기동 성당	동대문구	1957년 지어진 정면 중앙 종탑의 장방형 석조(石造) 종교건축물로 종탑, 정면, 양측면 출입구, 돌출부의 지붕 등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4
D.013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 기념물	동대문구	1976년 지어져 마장동~남산1호터널을 연결했던 도로시설물로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철거되기까지 서울 개발의 상징이었던 교각	나-04
D.014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동작구	1958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 지상 3층의 수평적인 매스에 8층 높이의 탑이 있는 중앙대학교의 랜드마크 건물이며 건축가 차경순의 작품	다-03
D.015	양화대교	마포구	광복 후 한국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교량	나-02
D.016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마포구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생한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나-02
D.018	한국 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마포구	1968년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비잔틴 양식의 그리스십자형 교회건축물. 내부의 벽화(icon화) 장식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정교회 성당이자 건축가 조창한의 작품	나-03
D.019	홍대 앞 서교 365	마포구	용산에서 당인리발전소를 연결하는 철로를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점가. 도시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만나 진귀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도시의 역사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	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20	석교감리교회	서대문구	1916년 지어진 강당식 평면형식을 가진 고딕양식의 교회건축물로 첨두아치(Pointed Arch) 등에서 우수한 조적 디테일을 보여주는 건축물.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3
D.021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서대문구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의 하나로 사용. 튜터풍의 고딕양식 외관, 첨두형 아치의 고딕장식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	나-03
D.022	이화여자대학교 진선미관	서대문구	1935년 지어진 석조(石造) 기숙사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 및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3
D.023	반포대교	용산구	강남지구 도시개발촉진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한국 최초의 2층 교량	다-03
D.024	잠수교	용산구	한강 수위변화의 척도 역할을 하는 교량	다-03
D.025	한남대교	용산구	본격적인 강남개발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된 교량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과 전국이 소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량	나-03
D.026	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위령탑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502명의 영혼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한 위령탑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조형물	다-04
D.027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동	서초구	1989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공공건축물로 언론, 드라마 등에 상징적인 건물로 등장하는 법원 건축물. 법원이라는 균형적 공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형적 의도가 반영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다-03
D.028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	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위령탑으로 교량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조형물	나-04
D.029	돈암동 성당	성북구	1955년 지어진 고딕양식의 종교건축물로 콜롬반외방선교회가 설립한 석조성당 중에서 외부 디테일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건물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30	장수마을	성북구	구릉지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좁고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써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사람들의 삶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가-05
D.0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관	성북구	1969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교육연구 시설로 구조주의 건축이 잘 구사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나-04
D.033	잠실종합운동장	송파구	198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체육시설로 서울 올림픽 개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물. 한국적 모티브를 살려 설계되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계기가 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다-04
D.034	잠실철교	광진구	전차와 자동차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울 최초의 교량	나-04
D.035	천호대교	송파구	노후한 광진교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건설된 교량으로 서울 동부의 관문역할을 하면서 강동구와 그 주변지역의 급진적 발전에 기여한 교량	나-05
D.036	도림동 성당	영등포구	1963년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에 5각 앱스(Apse)가 덧붙은 강당형으로 지어진 종교건축물로 양식적인 성당으로부터 모더니즘 성당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에 있는 건축물	다-02
D.037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선유도의 옛 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한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나-02
D.038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1916~1958년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던 자리이며 1971년까지 여의도 공군기지로 이용된 장소. 1972년 5.16광장(여의도광장), 1997년 공원으로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의 쉼터와 집결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여의도의 랜드마크	나-02
D.039	영등포 쪽방촌	영등포구	해방 이후 형성된 집창촌이 1970년대 주변 지역 재개발의 영향으로 쪽방촌으로 변모한 곳. 재개발 등과 같은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도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소	다-02
D.040	원효대교	영등포구	국내 최초로 디비닥공법(Dywidag工法)을 도입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장대교량으로써 지보공 없이 가설되어 미관이 수려한 교량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41	윤중제	영등포구	1968년 여의도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제방도로. 여의도 조성의 시초가 된 사업이며 여의도 개발의 상징적인 시설	나-02
D.042	남산1호터널	용산구	1970년 서울 요새화 계획에 따라 방공호를 목적으로 조성된 왕복 4차로의 쌍굴형 터널로써 서울의 남북 발전과 강남 개발의 촉진 이 된 터널	나-03
D.043	남산도서관	용산구	196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건축가 이해성의 작품	상세-다-02
D.045	통일교회 구 본부	용산구	1955년 지어진 일본주택양식의 목조 건축물로 통일교회 최초의 성전. 통일교회의 기원지이자 국내외로 발전한 통일교회의 주요 행사가 열리는 장소	나-03
D.047	해방촌	용산구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도심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시가화되지 않았던 이곳에 모여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나-03
D.048	불광동 성당	은평구	198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종교건축물로 한국 근현대 건축문화사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2
D.049	산새마을	은평구	재개발로 인한 지역공동체 등의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가 실시된 지역으로 텃밭 가꾸기, 마을방범활동 등의 마을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마을	나-02
D.050	NH농협 종로지점 (구 조선일보사옥)	종로구	1926년 지어진 철골조의 업무시설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일제강점기 민간 3대 신문 중 하나인 조선중앙일보의 사옥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	상세-나-02
D.052	관철동의 도시조직	종로구	1952년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 의해 최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	상세-나-03
D.053	돈화문로 주변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돈화문로 주변의 한옥밀집지역. 창덕궁, 종묘, 운현궁 등 주요 문화재가 주변에 입지하고 옛 도시조직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역	상세-나-03
D.054	명륜동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대학로 동측에 형성된 한옥밀집지역. 도시형 한옥들로 구성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가-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56	북촌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조선시대 세도가들의 대표적인 주거지로서 양반 및 관료들이 모여 살던 북촌의 한옥밀집지역.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다채로운 공간들이 담겨져 있는 장소	상세-가-03
D.057	사직터널	종로구	1967년 서울에 건설된 최초의 도로터널. 독립문과 경복궁 간 교통시간 단축과 도심에서의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한 터널로써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토목시설물	상세-나-01
D.058	삼청공원	종로구	1940년 고시된 140개 도시계획공원 중 제 1호 공원	나-03
D.060	서촌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조선시대 역관이나 의관 등 전문직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경복궁 서측의 한옥밀집지역.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들로 구성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가-01
D.061	아르코 미술관	종로구	1979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미술관으로 1979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붉은 벽돌이 특징인 건물로써 대학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상세-가-04
D.062	아르코 예술극장	종로구	1981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문화집회 시설로 대학로의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다목적 무대예술 공연장. 붉은 벽돌이 특징인 건물로써 대학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상세-가-04
D.063	이화동 벽화마을	종로구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2006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상세-가-05
D.064	인사동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조선시대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주택지였던 인사동의 한옥 밀집지역. 전통찻집, 한정식집 등의 상업화된 한옥들로 구성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나-03
D.065	31빌딩 (구 삼일로 빌딩)	종로구	1970년 지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오피스시설로 서울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당시 서울의 최고층 건축물. 근대건축의 거장 미스 반 데르 로에가 발전시킨 마천루 프로토타입을 한국에 적용시킨 건축물로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	상세-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66	한무숙 문학관	종로구	20세기 초 장안의 대목 심목수가 건축한 한옥으로 소설가 한무숙이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소설가 한무숙 창작(創作)의 산실로서 소설가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	상세-가-04
D.067	혜화동 주민센터 (구 한소제 가옥)	종로구	국내 최초 한옥형태의 동사무소로 한국걸스 카우트의 전신인 대한소녀단을 창설한 여의사 한소제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상세-가-04
D.068	남대문교회 본당	중구	1955년 기공하여 1969년 지어진 고딕양식의 석조(石造)교회로 외관의 디테일이 뛰어나고 장방형의 단순한 내부 평면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가 박동진의 작품	상세-다-02
D.069	남산 모자원 강당	중구	1959년 지어진 조적조의 아동보육시설로 한국전쟁 중 순국한 군경유자녀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육시설	상세-다-03
D.070	남산 모자원 본관	중구	1956년 지어진 조적조의 아동보육시설로 한국전쟁 중 순국한 군경유자녀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육시설	상세-다-03
D.072	베를린 광장	중구	베를린시로부터 베를린장벽, 베를린 베어(Berlin Bear), 조명등과 의자 등을 기증받아 2007년 조성된 광장. 서울과 베를린시 두 도시 간 우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	상세-나-03
D.073	서울침례교회 본당	중구	1954년 지어진 침탑형 종탑이 있는 조적조 교회건축물로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모교회.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 및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세-다-04
D.074	영락교회 본당	중구	1949년에 지어진 고딕양식의 석조교회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대표적인 건축물. 개신교 건축으로써 고딕양식에 가장 충실한 건물이며 라틴십자형의 완성된 형태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가 박동진의 작품	상세-다-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75	유네스코회관	중구	196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오피스시 설로 극장, 유네스코본부, 사무소, 백화점, 스카이라운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여 명동의 문화적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 건축물. 당시 기술로는 힘들었던 알루미늄 커튼월로 마감된 건축물로 1960년대 건축 구조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건축가 배기형의 작품	상세-다-02
D.076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 한국관구 수도원	중구	1965년 지어진 근대주의양식의 종교건축물. 평지붕의 옥상난간 장식, 수평 띠창문의 형태, 김수근의 자유센터를 연상시키는 출입구 캐노피와 격자장식 등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세-나-01
D.077	주한영국대사관 청사	중구	1892년에 지어진 조적조의 관사로 120년 이 넘게 한 장소에 있는 외교 공관. 근대화 기 서양식 건축물로 기초부분과 지붕구조의 콘크리트 재료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세-나-02
D.078	망우터널	종량구	일제 강점기 건설되어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터널	나-05
D.079	중앙선 폐철도노선	종량구	1939년 조성된 양원역과 구리역 사이의 중앙선 노선. 2005년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폐철도 노선이 될 때까지 66년간 철도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철로	나-05
D.104	갤러리 두가헌	종로구	1950년대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 타초노 킵고가 즐겨 사용하던 회색 화강석의 모서리 띠장식과 1층과 2층의 창호를 하나로 묶은 전면과 측면부의 아치창이 특징	상세-가-02
D.106	계동 48-12 건물군	종로구	1939년에 지어진 목구조의 2층 한옥	상세-가-03
D.107	광화문 지하보도	종로구	1966년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지하보도	상세-나-02
D.112	동신교회	종로구	1956년 종교시설로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고딕양식 건축물로 1950년대 석조 교회 건축 중에서 건축적 완성도가 높음	상세-나-05
D.116	옛 서울시장 공관	종로구	일제강점기에 경성부윤의 관사로 건축. 해방 후에는 서울시장의 관사로 사용됨. 내외부가 일부 변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125	은덕문화원	종로구	1906년에 주거시설로 지어진 목구조의 건축물로 한옥 위에 일식 건축이 증축된 희귀한 사례이며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 가치가 있음	상세-가-03
D.127	이화동 낙산 국민주택 단지	종로구	1950년대 말에 지어진 국민주택 단지로 청량리 부흥주택과 함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주거사적으로 의미가 있음. 서울 성곽 내부에 위치하며 독특한 경관을 보여줌	상세-가-05
D.131	종로구청 건물 (구 수송초등학교)	종로구	1930년대 교육시설로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조의 건축물로 채광을 고려하여 각 교실의 창호가 크게 계획됨. 1977년 수송초등학교 폐교 후 종로구청 본관으로 사용되지만 과거 외관과 T자형 꺾임부에 위치한 로비, 계단실 등이 비교적 잘 남아있음	상세-나-02
D.145	남대문 지하보도	중구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오래된 지하보도	상세-다-02
D.149	남산육교 고가차도	중구	1961년에 지어진 오래된 고가차도	상세-다-02
D.163	지하철 1호선	중구	1974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로 서울 지하철 역사의 시작이며, 1970년대 한국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첨단 교통수단	나-04
D.164	체부동 성결교회	종로구	1931년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지어진 조적조 교회 건축물로 이후 중축과정에서 영국식 벽돌쌓기가 도입. 건축적 특징 이외에도 남녀를 내외하기 위하여 조성된 출입구 2개의 흔적이 남아있는 등 당시 사회상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	세부-가-01
D.201	양재천	강남구	1995년 하천복원사업으로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심공원	다-04
D.202	제기동 상업용 한옥밀집지역	동대문구	도시형 한옥과 재래시장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	나-04
D.203	청량리 흥릉주택	동대문구	1950년대 미국의 원조와 일본식 건축기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지형 주거지	나-04
D.204	동소문동2가 한옥밀집지역	성북구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동소문동2가 일대에 조성된 한옥밀집지역	나-03
D.205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성북구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보문동 일대에 조성된 한옥밀집지역	나-04
D.207	서울역 고가도로	중구	1970년 서울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였던 서울역 주변교통을 완화하기 위해 완공된 고가차도	상세-다-01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401	서강대학교 본관	마포구	1958년 건립된 건축가 김종업의 초기 대표작. 엄격한 비례와 면 분할, 수평·수직매스의 활용 등 르꼬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은 건축언어가 돋보이는 작품	나-03
D.402	세종대왕 기념관	동대문구	1970년 건축가 송민구가 설계한 기념관. 한국 고전건축을 연상시키는 장방향의 입면과 신라 석탑의 조형미를 응용한 십자형 평면이 특징인 작품	나-04
D.403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용산구	1920년대 국립 농상공학교(현 선린인터넷고)의 강당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물로 당시 학교건축양식이 반영	나-03
D.404	쌍용빌딩	중구	1964년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 김수근이 1960년대 즐겨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도조장식의 패턴을 부착하여 입면의 예술성을 강조	상세-나-02
D.405	장위동 230-49 주택	성북구	1970년 건립된 단독주택으로, 1985년 김종업이 리모델링. 동방생명이 직원들의 사옥으로 조성한 동방주택단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	가-04
D.406	평안교회	중구	1967년 건립된 조적조 교회로 장미창, 수직성을 강조한 첨두아치창호 등 프랑스식 네오고딕 양식으로 디자인	상세-다-01
D.407	하늘가족교회 구 예배당	마포구	1958년 성광교회 예배당으로 지어진 석조 건물로 내부는 리모델링되었으나 외부는 당시 모습을 유지	나-03
D.501	경의선 숲길 공원	마포구	1906년 용산~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개통. 2009년 용산~가좌구간이 지하화되면서 지상구간에 2016년 공원이 조성	나-02~ 나-03
D.502	남산서울타워	용산구	1979년 세워진 한국 최초의 전파탑으로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	나-03
D.503	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 기념관	강동구	1923년 배재학당을 세운 선교사 아펜젤러를 기념하기 위하여 중구 정동에 건립한 벽돌식 학교건물. 1984년 배재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축·복원	나-05
D.504	세이장	종로구	1974년 김수근이 설계한 주택. 창암장, 우촌장과 더불어 1970년대 김수근 설계한 대표적인 주택으로 검은색 벽돌과 원목을 접목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건축물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505	숙명여자고등학교 도서관	강남구	1920년 종로구 수송동에 건립한 벽돌식 학교건물. 나카무라 요시헤이(中村 與資平)가 설계. 1980년 숙명여자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축·복원	다-04
D.506	지하철 경복궁 역사	종로구	1985년 공간건축에서 설계한 지하철역사. 경복궁 등 문화재와 주변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내부를 마감하고 전시공간을 상부에 설치	나-01
D.601	통일교 전 본부교회	용산구	1977년 건축가 이희태가 설계한 건축물로 육각형 평면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입면이 세련되어 건축적 가치가 높은 작품	나-03
D.602	용산제일교회 교회동	용산구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석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단아한 분위기의 건축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게 보존	나-03
D.603	환일고등학교 십자관	용산구	1957년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와 석조를 병용한 학교 건축물로서 원형이 잘 보존된 건축물	나-03
D.604	공공일호 (구 샘터사옥)	종로구	1979년 건립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대학로에 위치하여 연극인, 화가 등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에도 당시의 건축적 특성과 모습을 조화롭게 잘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상세-가-04
D.701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광진구	1970년 나상진이 설계한 철근콘크리트조의 교육연구시설. 수평의 기다란 콘크리트 매스가 특징	나-04
D.702	한양대학교 박물관	성동구	1980년 이해성이 설계한 철근콘크리트조의 박물관. 벽면을 분절하는 아치형 개구부, 매끈한 흰색타일과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재질이 상호 대비를 이루는 외관이 특징	나-04
D.801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중구	1970년 건축가 이광노의 설계로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회관. 1960년대 건축계 최고의 화두였던 공업화건축을 도입하여 콘크리트구조체에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외피로 마감.	상세-다-02
D.901	평산재	종로구	1978년 통의동에서 이축한 한옥으로 ‘ㄷ’자 평면. 대문 인근에 현관을 설치하고 객실과 내실을 구분, 뒷간을 통하여 각 실을 연결	가-03

3.5 문화예술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001	국기원	강남구	태권도를 발전, 확산시키기 위해 1972년 설립한 세계 태권도 본부가 있는 곳으로써 각종 세계 태권도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 태권도 보급의 요람	다-04
E.002	윤극영 가옥	강북구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곡집을 작곡하는 등 초창기 아동문학운동에 크게 기여한 작곡가 윤극영이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가-03
E.003	서정주 가옥	관악구	1970~2000년 생명파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인 서정주가 거주했던 가옥. 시작(詩作)의 산실로써 시인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	다-03
E.004	태릉선수촌	노원구	1966년 국가대표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설립한 종합 선수합숙훈련장.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자 산실	가-05
E.005	김수영 시비	도봉구	1969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 김수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시비	가-04
E.006	남정현 가옥	도봉구	1966년부터 한국문학의 대표적 저항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가 남정현이 거주해오고 있는 가옥	가-04
E.007	예술의 전당	서초구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시설	다-03
E.008	독섬승마장	성동구	조선시대 관마의 목마장, 군대의 연무장으로 이용되었던 독섬에 1954년 조성된 서울 유일의 승마장	나-04
E.009	박경리 가옥	성북구	한국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작품인 대하소설 '토지(土地)'를 쓴 소설가 박경리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가-03
E.010	변종하 가옥	성북구	시적인 정서에 한국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추구해 온 화가로 평가되는 변종하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나-03
E.011	윤중식 가옥	성북구	서양 미술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화가 윤중식이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나-03
E.013	효창운동장	용산구	1960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경기장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014	장용학 가옥	은평구	1970~1999년 '관념소설'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 낸 작가로 평가 받고 있는 소설가 장용학이 거주했던 가옥. '하여가행' 등을 집필했던 장소로써 소설가 장용학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	가-02
E.015	기독교방송국 (현 기독교서회 건물)	종로구	1954년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방송국이 있던 장소	상세-나-03
E.018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	종로구	2009년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세계기록유산인 '한글'을 기념하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동상	상세-나-02
E.019	세종로 이순신 동상	종로구	1968년 설립 이후 서울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근현대기를 함께 해온 동상으로 박정희대통령의 친필현판과 경축문이 남아있는 동상	상세-나-02
E.020	세종문화회관	종로구	1961년 우남회관으로 출발, 1972년 화재로 소실된 시민회관의 뒤를 이어 1978년 개관한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문화공간	상세-나-02
E.021	이상의 집	종로구	시인 이상이 3~23세까지 살던 백부 김연필의 집터 중 일부, 이상이 운영한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 '제비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학기념관으로써 시인 이상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	상세-가-01
E.022	카페 귀천	종로구	1985~2010년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 운영했던 전통찻집의 명맥을 잇고 있는 카페로써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장소	상세-나-03
E.024	학림다방	종로구	1956년경 개업하여 음악·미술·연극·문학 등 예술계 인사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었던 장소.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의 발원지	상세-가-04
E.025	허리우드극장	종로구	1969년 낙원상가 내 개관한 극장으로 1990년대까지 서울 시내 10대 개봉관 중 하나. 종로와 충무로 일대 영화의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	상세-나-03
E.026	국립극장	중구	1950년 현서울시의회 의사당건물에서 개관한 이후 한국의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종합민족문화센터	나-03
E.027	대한체육회관	중구	1920년 '조선체육회'로 창립된 우리나라 체육사의 상징이며 '대한체육회'의 구 본부	상세-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028	명동예술극장	중구	1934년 건축가 타마타 키즈지가 설계하여 당시 문화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한 바로크 양식의 영화관 건물. 서울의 한복판에서 연극, 오페라, 음악회 등 공연예술의 메카 구실을 하던 문화적 상징 장소	상세-다-03
E.031	석호정	중구	조선 인조 때 지어진 민간인을 위한 활터를 계승하고 있는 곳으로 시민들이 국궁을 통해 전통문화를 배워나갈 수 있는 장소	상세-다-04
E.032	세실극장	중구	1976년 개관한 소극장으로 1970~1980년대 연극의 메카, 건축가 김종업의 1970년대 작품 가운데 하나	상세-나-02
E.033	손기정기념관 (구 양정고)	중구	체육인 손기정이 다니던 양정의숙(양정고의 전신)의 옛 건물에 손기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	상세-다-01
E.034	장충리틀야구장	중구	1971년 지어진 서울 유일의 리틀 야구장. 한국 유소년 야구의 성지이자 메카	상세-다-04
E.035	장충체육관	중구	1963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돐 실내 경기장. 수많은 역사적인 운동 경기가 열린 장소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장소	상세-다-05
E.036	장충테니스장	중구	1971년 지어진 우리나라 테니스의 요람으로 수많은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개최한 장소	상세-다-04
E.037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고현학적 방법론(Modernology)을 통하여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을 묘사한 소설가 박태원의 대표적 소설	다-05
E.038	서울 토박이의 말		표준어의 근간을 이루는 서울지방 고유의 사투리	다-05
E.039	삼일로 창고극장	중구	1975년 문을 연 극장으로 프로듀서 시스템을 통한 창작극 발굴과 신인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며,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연극의 장이자, 사랑방 역할을 수행했던 공간	다-03
E.101	전뢰진 옛 가옥 및 작업실	관악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한국적 정서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재 조각가인 전뢰진의 가옥 및 작업실	다-02
E.103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	성북구	정통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양화가 서세옥의 가옥과 작업실	나-03
E.107	석파랑 (손재형 옛 가옥)	종로구	한국 서예계의 거목인 고 손재형의 옛 가옥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201	한국점자도서관	강동구	1969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점자도서관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	나-05
E.202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1975년에 지어진 공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와 주민 및 지역 사회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음	다-02
E.203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1983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가-04
E.204	국립국악원	서초구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전통에 기반을 둔 창조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가기관	다-03
E.207	김태길 가옥	종로구	철학자이자 수필가 김태길 교수가 1975년까지 살았던 장소로, 김태길 교수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	나-03
E.208	정동극장	종구	1995년 연극 및 전통 예술을 위해 건립된 전문 공연장	상세-나-05
E.301	광화사	-	김동인이 1935년 발표한 소설로 일제시대 인왕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모던한 도시 서울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남	다-05
E.302	길	-	1979년~1969년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손창섭의 소설로 1960년대 급격하게 도시화된 서울을 배경으로 개발과 근대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	다-05
E.303	나목	-	박완서가 1970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6.25 전쟁과 분단문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비판을 사회현상과 연관해서 그려낸 작품	다-05
E.304	날개	-	이상이 1936년 발표한 소설로 1930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로 변모해가는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	다-05
E.305	달밤	-	이태준이 1933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신문사 보조배달원을 통해 일제시대 서민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다-05
E.306	무정	-	이광수가 1917년 발표한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근대적 사랑과 당대의 생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음	다-05
E.307	병어리 삼룡	-	나도향이 1925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신분주의 세계에서 좌절된 사랑을 통해 근대화 이전의 서울의 모습과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308	별을 헨다	-	계용목이 1946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광복 후 월남한 사람들의 애환과 해방기 서울의 혼란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	다-05
E.309	삼대	-	염상섭이 1931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당시 서울의 풍경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음	다-05
E.310	서울은 만원이다	-	1966년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이호철의 장편소설로 1960년대 중반 서울을 배경으로 상경한 농촌 처녀들이나 월남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그리고 있음	다-05
E.311	오발탄	-	1961년 제작된 유현목 감독의 영화로 월남민이 자리 잡은 해방촌을 배경으로 6.25전쟁 이후의 비참한 서울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고 있는 작품	다-05
E.312	운수좋은 날	-	현진건이 1924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1920년대 인력거꾼의 하루에 대한 묘사를 통해 기층민중의 삶을 그려냄	다-05
E.313	천변풍경	-	박태원이 1938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다-05
E.314	취우	-	1952년~1953년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염상섭의 장편소설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서울을 배경으로 전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개개인의 이기적 욕망 추구를 묘사한 작품	다-05
E.315	태평천하	-	채만식이 1938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판소리에서 사용되던 표현법을 활용하여 식민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인물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	다-05
E.316	그날이 오면	-	1949년 발간된 심훈의 유고집 〈그날이 오면〉에 수록된 시로 광복된 조국의 그날을 열정적으로 노래한 민족항일기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서울 지명이 나타나고 있음	다-05
E.317	도봉	-	박두진이가 1946년 발표한 시로 가을 도봉산의 고요하고 적적한 모습을 바라보며 삶을 성찰하는 작품	다-05
E.318	독방 62호실의 겨울	-	김광섭이 1941년 발표한 시로 김광섭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저항을 상징함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319	봉황수	-	조지훈이 1940년 발표한 시로 퇴락한 궁궐을 시적 소재로 하여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면서,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노래하였음	다-05
E.320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이 1969년 발표한 시로 당시 성북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배경으로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표현한 작품	다-05
E.321	세월이 가면	-	명동을 배경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했던 박인환이 명동 어느 선술집에서 즉흥적으로 쓴 시로 1956년 발표되어 국민 애창시이자 명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유명함	다-05
E.322	아스팔트	-	1941년 발간된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에 수록된 시로 서울의 초기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서울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음	다-05
E.323	왕십리	-	김소월이 1925년 발표한 시로 '왕십리'라는 서울 지역의 지명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	다-05
E.324	종로5가	-	신동엽이 1967년 발표한 시로 종로5가에서 갓 상경한 소년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비참함과 구조적 모순을 환기시키고 있는 작품	다-05
E.325	창의문외	-	백석이 1933년 발표한 시로 1930년대 중반 창의문 밖의 세검정 쪽의 풍경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	다-05
E.326	천리를 올라온다	-	김영랑이 1949년 발표한 시로 일제 강점기 감상주의적 면모에서 벗어나 새나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인의 변화된 변모를 보여주는 작품	다-05
E.327	귀로	-	1967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서울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관을 활용하여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서울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	다-05
E.328	마부	-	1961년 제작된 강대진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전근대와 근대가 충돌하는 당시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	다-05
E.329	맨발의 청춘	-	1964년 제작된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젊은 세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그들의 공유했던 문화를 표현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330	바보들의 행진	-	1975년 제작된 하길종 감독의 영화로 1970년대 서울의 대학가를 배경으로 비판적 사고를 거세당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화	다-05
E.331	별들의 고향	-	1974년 제작된 이장호 감독의 영화로 1970년대 고도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 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여성의 개방적인 성의식을 그려 내고 있는 작품	다-05
E.332	서울의 지붕밑	-	1961년 제작된 이형표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전통과 근대가 대립하는 당시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	다-05
E.333	서울의 휴일	-	1956년 제작된 이용기 감독의 영화로 서촌, 청계천, 덕수궁, 남대문, 남산 등 1950년대 서울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다-05
E.334	영자의 전성시대	-	1975년 제작된 김호선 감독의 영화로 1970년대 전문적인 기술 없이 상경한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이 바라보는 욕망과 좌절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표현한 작품	다-05
E.335	오발탄	-	이범선이 1959년 발표한 소설로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을 정밀하게 다룬 작품	다-05
E.336	혈맥	-	1963년 제작된 김수용 감독의 영화로 전쟁으로 인한 실항민들의 애환을 다룬 이야기로 영화 화면을 통해 60년대 서울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음	다-05
E.337	월간 시조	-	1910년 창간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월간지로 근현대사의 수난 속에서도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 옴	다-05
E.401	국물 있습니다	-	이근삼이 1966년 발표한 작품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도시 속에서 비인간적인 행태로 성공을 거둔 주인공이 결국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도시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그려낸 작품	다-05
E.402	불모지	-	차범석이 1958년 발표한 작품으로 전후 도시 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피폐해진 서울의 모습을 통해 인간 정신의 공동화와 피폐화 현상을 그려낸 작품	다-05
E.403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	오영진이 1949년 발표한 작품으로 해방 직후 서울에서 매판 자본가들이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지키려는 삶을 풍자적으로 그려냄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404	혈맥	-	김영수가 1848년 발표한 작품으로 해방 직후 무질서한 서울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을 통해 광복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희곡	다-05
E.405	고궁추색	-	작곡가 금수현이 1961년 발표한 작품으로 서울 고궁의 가을 모습을 전통 음악적 어법의 예술가곡으로 치환시킨 작품	다-05
E.406	한강	-	작곡가 변훈과 작사가 정공채가 1986년 발표한 작품으로 악구를 통해 평화로운 한강의 흐름과 장조와 단조의 치환을 통해 분단의 한을 그려낸 작품	다-05
E.407	한강(칸타타)	-	작곡가 채동선이 1964년 발표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성곡이며,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다-05
E.408	딸각발이	-	1952년 발표된 이희승의 대표적인 수필으로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하였던 6.25전쟁 당시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중요성을 드러낸 작품	다-05
E.409	마포	-	작가 백석이 1935년 출간한 작품으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던 마포에서 조선의 문물과 근대적 문물이 공존하는 모습을 백석이 그만의 예술적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	다-05
E.410	꺼봉이	-	1970년대 서울 신흥주거지의 골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아파트가 등장하기 전 골목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만화가 길창덕의 대표작품	다-05
E.411	선달이 여행기 (서울편)	-	길창덕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어린이 잡지 <새소년>에 연재한 만화로 창경원, 고가도로 등을 통해 1970년대 서울의 모습과 생활상을 흥미롭게 묘사한 작품	다-05
E.412	돌아가는 삼각지	-	가수 배호가 1967년 발표한 가요로 배상태가 작곡하고 이인선이 작사한 곡. 1960년대 근대도시 서울을 상징하였던 삼각지 로터리를 배경으로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가 담겨있는 작품	다-05
E.413	마포종점	-	은방울자매가 1968년 발표한 가요로 박춘석이 작곡하고 정두수가 작사한 곡. 1968년 서울 전차의 운행종료에 대한 아련함을 영등포, 당인리 발전소, 여의도 비행장 등 여러 장소들을 통하여 노래한 작품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414	서울로 가는 길	-	가수 양희은이 1971년 발표한 가요로 작곡가 김민기가 1970년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 작사·작곡한 곡	다-05
E.415	서울의 모정	-	작곡가 길옥윤이 작사·작곡하고 가수 패티 김이 1973년 발표한 작품으로 1970년대 서울 남산과 명동을 배경으로 연인들의 사랑과 맹세를 노래함	다-05
E.416	서울의 아가씨	-	가수 이시스터즈가 1962년 발표한 곡으로 박선길이가 작곡하고 김남석이 작사함. 1960년대 서울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경쾌한 리듬으로 밝고 환하게 노래한 작품	다-05
E.417	서울의 찬가	-	작곡가 길옥윤이 작사·작곡한 곡으로 빠른 박자와 경쾌한 리듬으로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담은 작품. 가수 패티 김이 특유의 창법으로 밝고 명랑하게 불러 더욱 유명해졌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애창된 작품	다-05
E.418	안개 낀 장충단 공원	-	배상태가 작곡하고 최치수가 작사한 곡으로 도시의 정서를 그만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가수 배호가 1976년 발표한 작품	다-05
E.419	유쾌한 시골 영감	-	조지 존슨의 〈Laughing Song〉에 범오가 작사한 가사를 붙여 가수 강홍식이 1938년 발표한 번안곡. 도시화의 시작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골사람들의 모습을 유쾌한 모습으로 그려내어 이후에도 〈서울구경〉으로 편곡되는 등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	다-05
E.420	제3한강교	-	작곡가 길옥윤이 작사·작곡하고 가수 혜은이가 1979년 발표한 곡으로 용산 한남동과 강남 신사동을 이어 강남개발의 기점이 된 제3한강교와 그 아래를 흐르는 한강을 무대로 연인들이 미래를 약속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	다-05
E.501	가람일기	-	이병기가 1920~1963년 쓴 일기를 제자 정병욱이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병기의 수다한 일상과 더불어 시대를 바라보는 혜안을 살피볼 수 있는 작품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502	가상소건	-	1928년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안석영의 가상소건 시리즈는 5편의 삽화와 글로 이뤄진 만문만화로, 서울의 풍경이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당대 사람들의 행태를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작품	다-05
E.503	그리운 이름 따라 - 명동 20년	-	1966년 명동백작이라고 불렸던 이봉구가 하며 쓴 수필로, 195·60년대 명동을 배경으로 다방과 싸롱, 주점들을 전전하면서 문학예술을 펼쳤던 오장환, 박인환, 전혜린 등을 회고하며 쓴 글	다-05
E.50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1972년 최인훈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6)의 형식을 차용하여 집필한 연작소설. 일제강점기 경성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를 다루었던 전작과 달리 서울로 피난 온 소설가 구보씨의 1969~1972년의 일과를 기술한 소설	다-05
E.505	「사주오」 두부 장수	-	1940년 이회승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어학자인 최현배가 쓴 작품으로 문학적 가치가 뛰어남	다-05
E.506	찔레꽃	-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말봉의 장편소설로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연애 서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당시 독자들의 대중적 취미를 자극하여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	다-05
E.507	한국인	-	1966년 출간된 손장순의 소설로 해방부터 한국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964년 6.3 대일굴복외교반대 데모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배경으로 미국 유학생의 인텔리틱 삶과 상처가 담겨 있는 작품	다-05
E.601	통인화랑	종로구	1975년 개관하여 박서보, 윤광조, 허건 등 유명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 고미술품 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화랑	상세-나-03
E.602	조선화랑	강남구	1971년 개관하고 국제기획전·해외아트페어에 참가하여 한국작가들의 국제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한 화랑	다-04
E.603	예화랑	강남구	1978년 개관하여 백남준 관련 작품전을 다수 기획하였고, 강남의 첫 화랑으로서 신사미술제를 개최하는 등 강남지역의 미술문화를 선도한 화랑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604	샘터화랑	서초구	1978년 개관하고 1980년대 민중미술과 관련된 많은 작가·작품을 발굴하여 민중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화랑	다-03
E.605	전아사	-	1927년에 발표된 최서해 소설. 제목 '전아사(錢迺辭)'는 '전별사'의 반대 의미로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한다는 의미이며 최서해의 자전적 소설의 맥을 보여줌. 간도에서 서울로 처음 온 함경도 출신 주인공이 서울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 들면서 예전의 생활을 잊게 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	다-05
E.606	전차구경	-	1976년에 발표된 하근찬 소설로, 1974년 처음 개통된 지하철 1호선을 타러 간 조주사와 손자의 하루 여행을 다루고 있음. 지하철이 개통될 당시 서울의 모습과 사람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	다-05
E.607	어머니	-	1925년에 발표된 나도향 소설로, 흥성거리는 종로의 거리와 청파동, 효창공원 등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음. 첩 신분이 된 여주인공이 아이를 버리고 가출을 감행했다가 아이가 병들자 돌아오는 이야기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자유연애와 모성의 결합 문제를 다룸	다-05
E.801	도시로 간 처녀	-	1981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로, 1980년대 서울로 상경한 시골 여성들의 노동 문제를 담은 작품	다-05
E.802	돈	-	1958년 김소동 감독의 영화로, 1950년대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농촌과 이에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서울을 잘 살피볼 수 있는 작품	다-05
E.803	로맨스빠빠	-	1960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서울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	다-05
E.804	박서방	-	1960년 강대진 감독의 영화로, '해방촌'을 배경으로 1960년을 전후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아낸 작품	다-05
E.805	삼등과장	-	1961년 이봉래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당시 서울의 근대화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E.806	수학여행	-	1968년 유현목 감독의 영화로, 1968년 당시 서울의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807	어화	-	1938년 안철영 감독의 영화로, 당시 한국 영화의 기술·형식·내용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	다-05
E.808	여사장	-	1959년 한형모 감독의 영화로, 당시 독립적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해서 미도파 앞 공중전화, 명동 거리 등 서울시내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E.809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	1966년 한형모 감독의 영화로, 1963년 개장한 워커힐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다-05
E.810	젯트부인	-	1967년 이규웅 감독의 영화로, 한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아파트로 건설된 마포아파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	다-05
E.811	지옥화	-	1958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로, 1950년대 서울역, 성동구 일대 등 서울의 거리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E.812	휴일	-	1968년 이만희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당대 한국 청춘들의 우울한 현실을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담아낸 작품	다-05
E.813	경성유록	-	1913년 강릉 김씨부인이 서울을 여행한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로, 남대문 부근의 풍경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감상이 잘 묘사된 작품	다-05
E.814	호박 목걸이	-	1917년부터 1942년까지 서울에 살았던 메리 L. 테일러가 쓴 자서전으로 당대 한국 풍경과 한국인에 대한 서술이 사실적이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	다-05

IV

현황 및 서울 미래유산
향후과제

1. 미래유산의 사회적 인지도

언론기사에 나타난 미래유산의 사회적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전국일간지와 경제일간지, 방송사의 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래유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미래유산’을 키워드로 한 언론기사 총 678건을 대상으로 데이터전처리를 거쳐 추출된 8,392개의 단어를 활용하여 LDA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게 집합화된 9개의 토픽에 대하여 해당 토픽 내 순위가 높은 단어와 오직 해당 토픽에서만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상위 단어를 바탕으로 각각의 토픽을 정의하였다. 9개의 토픽은 다시 내용에 따라 미래유산의 정책적 성과를 나타내는 ‘제도적 기반마련’, ‘다양한 문화유산 조명’, ‘공감대 형성 노력’, ‘다양한 향유기회 제공’, ‘관광콘텐츠 다각화’에 관한 토픽과 향후 과제로서 제시된 토픽인 ‘임대차 갈등’, ‘강제적 보존반대’, ‘운영난’, ‘가치 해석 충돌’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책적 성과에 관한 토픽

① 토픽1 ‘제도적 기반마련’

‘윤극영가족(미래유산 보전 1호 사업)’을 비롯하여 ‘마스터플랜’, ‘시범사업’, ‘조례’, ‘제정’, ‘위원장’, ‘내셔널트러스트’와 같이 미래유산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 계획수립, 관련사업 추진, 조직운영, 민간 참여 유도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유산 시행 초기의 행정적, 제도적 체계 구축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보도하였다.

② 토픽2 ‘다양한 문화유산 조명’

‘음식’, ‘영화’, ‘노래’, ‘소설’, ‘풍경’, ‘시장’ 등 미래유산의 다양한 유형과 ‘장수막걸리’, ‘설렁탕’, ‘보신각 타종’ 등 구체적인 대상을 소개하였다. 문화재로만 국한되었던 문화유산이 미래유산을 통하여 서울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지역과 감성으로 확대된 사실을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③ 토픽3 ‘공감대 형성 노력’

‘공모전’, ‘자발’, ‘시민’, ‘의견’, ‘홍보물’ 등의 단어를 통하여 시민 스스로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소유·관리자가 자발적으로 보전하는 미래유산의 취지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던 서울시의 여러 노력을 소개하였다.

④ 토픽4 ‘다양한 향유기회 제공’

‘어린이’, ‘체험’, ‘이용’, ‘콘텐츠’, ‘서비스’, ‘검색’, ‘승마’ 등 미래유산의 다양한 활용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미래유산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를 비롯하여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 기마경찰대 승마체험, 양재천 생태하천 체험 등 시민들이 서울 미래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했던 사례들을 보도하였다.

미래유산 관련 언론기사 토픽모델링 결과

키워드 순위	성과					향후과제			
	토픽1 제도적 기반마련	토픽2 다양한 문화유산 조명	토픽3 공감대 형성 노력	토픽4 다양한 향유기회 제공	토픽5 관광 콘텐츠 다각화	토픽6 임대차 갈등	토픽7 강제적 보전반대	토픽8 운영난	토픽9 가치해석 충돌
1	윤극영 가옥	음식	건축	양재천	답사	공씨채방	주민	세실극장	태릉 선수촌
2	교회	영화	공모전	하천	해설	헌책방	재건축	폐관폐업	시인
3	마스터 플랜	전통	제도	자연	탐방	을지OB 베어	공공	연극	친일
4	동요	노래	예산	어린이	남산	노가리 골목	흔적 남기기	국립	민족
5	유적	소설	자발	체험	골목	임대료	주택	정동극장	대학
6	묘역	시장	공모	코스	도로	영업	개포주공	어린이	등재
7	시범사업	풍경	프로젝트	생태	해설사	계약	반대	영동 스넥카	흔적
8	구로공단	동대문	우수	도심	교회	접수	조합	창작	독립
9	화랑	타워	사례	투어	광화문	국시집	공사	공연	오래
10	자원화	장수 막걸리	개최	이용	남대문	상가	지하	정동	주인
11	순국선열	관광객	연구	김수근	답사단	단골	정비	소극장	인사동
12	조례	광장	시행	추모	빌딩	심사	내부	성공회	인사
13	제정	상인	다수	서비스	표지	강제성	고려	중구	아들
14	위원장	페이스북	디자인	한강	지하철	을지로	단지	중심지	학림다방
15	구상	평화	맞춤형	정보	고종	목록	구역	무대	혜화동
16	반달	발전	시민	도서관	동상	요구	재생	대공원	이발소
17	민주	설령탕	실시	정치	해방	장사	검토	임대	할머니
18	성장	보신각 타종	공감대	콘텐츠	학교	간판	주거	만화	김성수
19	수유동	청춘	의견	검색	토요일	임대차	사유 재산권	민주	서촌
20	내셔널 트러스트	인증서	홍보물	승마	호텔	명도소송	쪽방촌	치킨	문화재청
연관 문서수	101	74	74	66	57	108	69	67	62

※ 분석도구: 데이터 수집: 빅카인즈, 텍스트마이닝: NetMiner4.5

분석방법: 핵심단어(TFIDF 0.7 이상) 추출 후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토픽모델링 실시

⑤ 토픽5 ‘관광콘텐츠 다각화’

‘답사’, ‘해설’, ‘탐방’, ‘남산’, ‘해설사’, ‘답사단’ 등 서울의 색다른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미래유산을 활용하였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다양한 주제의 관광코스 개발과 ‘서울미래유산 역사탐방’, ‘미래유산 그랜드투어’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향후과제에 관한 토픽

⑥ 토픽6 ‘임대차 갈등’

‘공씨책방’, ‘을지OB베어’, ‘노가리골목’, ‘임대료’, ‘임대차’, ‘명도소송’ 등 임대차 갈등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은 사례가 언급되었다. 공공의 개입을 기대하는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와 소유·관리자의 자발적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공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래유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⑦ 토픽7 ‘강제적 보존반대’

‘재건축’, ‘흔적남기기’, ‘개포주공’, ‘반대’, ‘조합’, ‘사유재산권’ 등의 단어를 통하여 일부 미래유산에 대한 강력한 보존 방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보존대상과 보존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를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자발적 보전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정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재건축 아파트 일부에 대해서는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상반된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⑧ 토픽8 ‘운영난’

‘세실극장’, ‘폐관폐업’, ‘영동스넥카’, ‘소극장’ 등 미래유산 가운데 일부 영세한 시설들이 사회적 여건 변화로 문을 닫거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이야기하였다. 전승 가치를 가진 미래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과 사업을 활용하여 개별 미래유산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⑨ 토픽9 ‘가치해석 충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태릉의 훼손 논란이 있는 ‘태릉선수촌’을 비롯하여 ‘시인’, ‘친일’, ‘민족’, ‘학림다방’, ‘김성수’ 등의 친일 인사와 공안사건 등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네거티브 유산에 관한 논란을 다루었다. 시민 모두가 미래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의미를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미래유산의 문화영향평가

조사방법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전·현직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14일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총 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의 오류가 없어 모든 설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2021)가 제시한 6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도출한 12개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조사하였다.

미래유산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설문구성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	미래유산이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소외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표현의 기회확대	미래유산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가 늘어났습니까?
		시민참여의 정도	미래유산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참여기회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까?
문화 정체성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생태계 가치향상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생태계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화생태계 저변확대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생태계의 저변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습니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형성	미래유산이 서울시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술적 교류 형성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이 문화예술인, 문화단체 등과 교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의 기여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	미래유산이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창의성 실현정도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화의 변화선도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적 변화와 혁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응답자 기초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60명의 서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전·현직 전문위원 가운데 ‘남성’은 33명(55.0%), ‘여성’은 27명(45.0%)이었으며, 연령은 ‘60대 이상’이 27명(45.0%)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35.0%), ‘40대’ 11명(18.3%), ‘30대 이하’ 1명(1.7%) 순이었다. 직업은 ‘대학교수’ 32명(53.3%), ‘공공·민간기관의 연구원’ 7명(11.7%), ‘민간회사의 대표·직원’ 6명(10.0%), ‘프리랜서 작가·평론가’ 5명(8.3%), ‘은퇴자’ 4명(6.7%) 순이었으며, 보존위원회 활동분과를 복수응답으로 묻는 질문에는 ‘도시관리분과’ 15명(25.0%), ‘문화예술분과’ 14명(23.3%), ‘정치역사분과’와 ‘시민생활분과’가 각 12명(20.0%), ‘산업노동분과’ 6명(10.0%), ‘기획위원회’ 2명(3.3%)로 응답하였다. 서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활동기간은 ‘4년 미만’이 26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 16명(26.7%), ‘6년 미만’ 11명(18.3%), ‘6년 이상’ 7명(11.7%)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인적특성

항목		빈도 (명)	비율 (%)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33	55.0	직업	중앙·지방 공무원	1	1.7
	여성	27	45.0		대학교수	32	53.3
연령	30대 이하	1	1.7		박물관·문화관 소속의 관장·직원	1	1.7
	40대	11	18.3		공공·민간기관의 연구원	7	11.7
	50대	21	35.0		언론기관 소속의 저널리스트	1	1.7
	60대 이상	27	45.0		민간회사의 대표·직원	6	10.0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활동분과 (복수응답)	정치역사분과	12	20.0		비영리단체(시민단체)의 대표·직원	2	3.3
	산업노동분과	6	10.0		프리랜서 작가·평론가	5	8.3
	시민생활분과	12	20.0		은퇴자	4	6.7
	도시관리분과	15	25.0		기타	1	1.7
	문화예술분과	14	23.3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활동기간	2년 미만	16	26.7
	기획위원회	2	3.3		4년 미만	26	43.3
	기타	1	1.7		6년 미만	11	18.3
					6년 이상	7	11.7

② 서울 미래유산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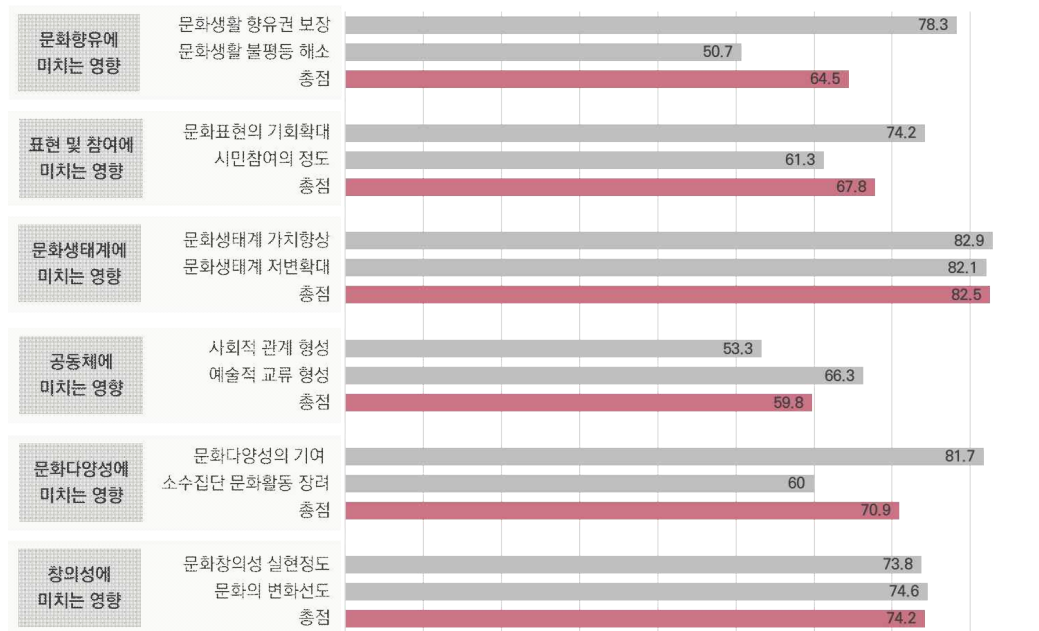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향상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63.3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세분한 항목별로는 절대적 만족도가 66.7점으로 가장 높았고 향상적 만족도 62.9점, 상대적 만족도 60.4점 순이었다.

미래유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전체
전반적 만족도	항상적	62.9
	상대적	60.4
	절대적	66.7
	총점	63.3

분석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6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설정한 12개 세부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82.5)이 가장 높았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59.8)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문화생태계 가치향상(82.9), 문화생태계 저변확대(82.1)가 가장 높았고,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50.7), 사회적 관계 형성(53.3),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60.0), 시민참여의 정도(61.3), 예술적 교류 형성(66.3)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미래유산 문화영향평가 결과

①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과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를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64.5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은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에 대한 전문가 평가 78.3점,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50.7점 순이었다.

미래유산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점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	78.3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	50.7
	총점	64.5

②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표현의 기회확대’, ‘시민참여의 정도’를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67.8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은 문화표현의 기회확대에 대한 전문가 평가 74.2점, 시민참여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61.3점 순이었다.

미래유산이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구분		점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표현의 기회확대	74.2
	시민참여의 정도	61.3
	총점	67.8

③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화생태계 가치향상’과 ‘문화생태계 저변확대’를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82.5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은 문화생태계 가치향상에 대한 전문가 평가 82.9점, 문화생태계 저변확대에 대한 전문가 평가 82.1점 순이었다.

서울 미래유산이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구분		점수
문화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생태계 가치향상	82.9
	문화생태계 저변확대	82.1
	총점	82.5

④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예술적 교류 형성’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59.8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은 예술적 교류 형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66.3점,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53.3점 순이었다.

미래유산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구분		점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형성	53.3
	예술적 교류 형성	66.3
	총점	59.8

⑤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기여’,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를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70.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은 문화다양성의 기여에 대한 전문가 평가 81.7점,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에 대한 전문가 평가 60.0점 순이었다.

미래유산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구분		점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의 기여	81.7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	60.0
	총점	70.9

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창의성 실현정도’, ‘문화의 변화선도’를 세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의 서울시민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74.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은 문화의 변화선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74.6점, 문화창의성 실현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73.8점 순이었다.

서울 미래유산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구분		점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창의성 실현정도	73.8
	문화의 변화선도	74.6
	총점	74.2

3. 미래유산의 경제적 가치

조사방법

미래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비시장재화(non marketed goods)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화폐단위의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때 지불수단은 공공재화나 서비스의 가치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세금'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불대상은 소득이 있는 '가구'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101명에 대하여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본조사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1주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였다.

미래유산 브랜드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70세 미만 성인남녀
표본크기	사전조사: 101명/ 본조사: 1,000명
지불수단	세금(특정 재원 및 세목을 구분하지 않음)
지불대상	가구
조사방법	사전조사: 일대일개별면접조사/ 본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사전조사: 2022.10.14.~10.16./ 본조사: 2022.10.27.~11.04.
조사항목	미래유산과 유사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인지도, 필요성, 선호도) 미래유산 세부사업별 세금 지불의사금액

한편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설문 응답자의 인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86	48.6	혼인여부	미혼	444	44.4
	여자	514	51.4		기혼	549	54.9
연령	20대	203	20.3		기타	7	0.7
	30대	201	20.1	가구원수	1인	172	17.2
	40대	202	20.2		2인	177	17.7
	50대	213	21.3		3인	322	32.2
	60대	181	18.1		4인	289	28.9
거주권역	도심권역	48	4.8		5인 이상	40	4.0
	동북권역	308	30.8	최종학력	중졸이하	7	0.7
	동남권역	213	21.3		고졸이하	147	14.7
	서북권역	121	12.1		대학재학	88	8.8
	서남권역	310	31.0		대학졸업	620	62.0
직업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3	0.3		대학원 재학 이상	138	13.8
	자영업	61	6.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5.9
	판매/서비스직	68	6.8		100~200만원 미만	53	5.3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	52	5.2		200~300만원 미만	111	11.1
	일반사무직	391	39.1		300~500만원 미만	197	19.7
	관리직/전문직	129	12.9		500~700만원 미만	223	22.3
	주부	128	12.8		700~1000만원 미만	221	22.1
	학생	51	5.1		1000만원 이상	136	13.6
	무직/기타	117	11.7				

먼저 미래유산과 함께 사업 성격이 유사한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을 대상으로 사업별 인지도와 필요성, 선호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① 사업 인지도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에 대하여 평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설문하였다. “잘 알고 있음”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서울미래유산’이 296명(29.6%)로 가장 많았고, ‘서울우수한옥’ 281명(28.1%), ‘오래가게’ 238명(23.8%), ‘서울건축자산’ 218명(21.8%) 순이었다.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의 사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는 봤음	전혀 모름
서울미래유산	48	248	389	315
서울건축자산	33	185	322	460
오래가게	49	189	274	488
서울우수한옥	66	215	349	370

② 사업 필요성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매우필요”와 “필요”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서울우수한옥’이 844명(84.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미래유산’ 833명(83.3%), ‘서울건축자산’ 827명(82.7%), ‘오래가게’ 774명(77.4%) 순이었다.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의 사업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불필요	전혀 불필요
서울미래유산	198	635	133	34
서울건축자산	167	660	135	38
오래가게	166	608	181	45
서울우수한옥	278	566	116	40

③ 사업 선호도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서울미래유산’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460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우수한옥’ 227명(22.7%), ‘서울건축자산’ 172명(17.2%), ‘오래가게’ 141명(14.1%) 순이었다.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의 사업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서울미래유산	서울건축자산	오래가게	서울우수한옥
응답수	460	172	141	227

조사결과

미래유산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서울시 가구당 세금지불 의사를 근거로 미래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미래유산에 대한 향후 5년간 세금지불 의사금액은 약 1,2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래유산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연간 가구당 세금지불 의사금액을 모두 합산한 6,049원에 서울시 전체 가구 수 4,046,799(2021년 통계청)와 5년을 곱하여 계산하였다.¹⁾

연간 세금지불 의사금액을 세부 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이 10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43억원, ‘서울미래유산 홍보사업’ 21억원, ‘서울미래유산 발굴을 위한 시민공모사업’ 18억원, ‘서울미래유산 아카이브(기록) 자료조사사업’ 14억원 순이었다.

1) 미래유산과 성격이 유사한 건축자산의 경우 향후 5년간 세금지불 의사금액은 미래유산의 약 0.6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유산 관련 세부사업별 세금지불 의사금액

(단위: 원)

사업구분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	연간 총 지불의사금액**	5년간 총 지불의사금액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사업	2,598	10,513,583,802	52,567,919,010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303	1,226,180,097	6,130,900,485
미래유산 발굴을 위한 시민공모사업	448	1,812,965,952	9,064,829,760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1,058	4,281,513,342	21,407,566,710
미래유산 아카이브(기록) 자료조사사업	358	1,448,754,042	7,243,770,210
미래유산 홍보사업	520	2,104,335,480	10,521,677,400
미래유산 홍보관 운영사업	335	1,355,677,665	6,778,388,325
미래유산 홈페이지 운영사업	233	942,904,167	4,714,520,835
기타	196	793,172,604	3,965,863,020
총합	6,049	24,479,087,151	122,395,435,755

* 지불의사금액 추정방법: 단일양분선택형

** 서울시 전체 가구수: 4,046,799가구(2021, 통계청)

4. 전문가 자문회의

현·전직 미래유산 보존위원 12명을 초청하여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2년 9월 7일, 9월 19일, 9월 26일 3차례에 걸쳐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는 ‘미래유산의 미래지향적 가치 강화’,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의 시행’, ‘이야기를 매개로 미래유산의 가치 해석을 다각화 유도’, ‘미래유산 관련 주체 간의 협력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미래유산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강화

먼저 ‘미래유산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미래유산의 정책적 취지가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을 미래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견인하는 데에 있는 만큼 현직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서 미래세대의 비중을 늘리고 미래세대의 시각과 이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 미래유산을 선정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미래세대와의 협업으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유산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의 시행

현재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저조한 만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등학생,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유산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 K-Culture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 미래유산의 영어 콘텐츠 제작에도 힘써으로써 미래유산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야기를 매개로 미래유산의 가치 해석을 다각화

참여형 문화유산으로써 미래유산만의 차별화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매개로 미래유산의 가치 해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야기를 매개로 미래유산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문화유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정신적,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래유산에 대한 포용적 해석은 미래유산으로 야기된 가치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치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고 조언하였다. 다만, 서울시가 미래유산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이야기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미래유산 관련 주체 간의 협력 확대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발굴한 다양한 유형의 미래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유산 관련 주체 간의 협력 확대’ 방안으로 관련 서울시 부서 간의 정책 내용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운영, 실무경험이 많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와 공모단체 사이의 다양한 협업 기회 제공, 시설보수 등의 물리적 지원 이외의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의 요구를 반영한 경영컨설팅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시민유산으로서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관리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제1차 자문회의(2022.09.07.) 주요내용]

정혜경 시민생활분과 위원

- 무형유산에 관한 관심이 필요. 그 가운데 음식이 대표적
- 최근에는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국가단위에서 도시단위로 이동. 미국의 음식보다는 뉴욕의 트렌디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
- 청결 등 유지·관리에 있어 소유·관리자의 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페널티 개념의 강제적인 탈락도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
- 서울미식주간 등의 행사를 통한 음식점 등 시민생활분과 유산에 대한 홍보도 검토

권기봉 도시관리분과 위원

- 도시관리분과의 경우, 서울시민보다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래유산의 선별이 진행
- 서울시 부서 간의 정책 내용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운영이 필요
- 미래유산의 경우 현상 보존도 중요하지만, 변화과정도 고려되어야. 시설보수 등의 물리적 지원 이외에도 홍보·운영전략, 상품·메뉴개발, 직원·재무관리, 안전·위생관리 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컨설팅 등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
- 조례검토 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명칭을 미래유산 보전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 검토
- 교통방송의 홍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1~2분 분량의 미래유산 홍보 방송 송출

김수자 정치역사분과 위원

- 발굴이 요구되는 것은 지속해서 발굴하여야
- 담당 부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
-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의 선제적 발굴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노력이 요구
-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유산으로서의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정윤수 문화예술분과 위원

- 미래유산의 활용에 있어 기존 회고적 접근에서 벗어나 당대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요구
- 미래유산에 대한 해석도 긍정적인 부분 이외의 상반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제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 가칭 서울 미래유산 페스티벌의 개최도 검토
- 주제가 있는 공모전 운영. 지하철 1호선이나 강남의 기억, 운동장(효창 50-60년대, 동대문 70-80년대, 잠실 80-90년대, 상암 2000년대)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공모전 운영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구성도 교수보다는 전시 또는 행사기획 등 활용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 모색

표정훈 산업노동분과 위원

- 메타버스 등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로 서울시민의 문화적 접근성 개선
- 세계화에 맞추어 영어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유명인과의 협업으로 미래유산의 인지도 향상

[제2차 자문회의(2022.09.19.) 주요내용]

이길상 시민생활분과 위원

- 서울시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간의 지속적인 정보공유가 필요
- 미래유산 보존위원이 서울시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요구
- 미래세대와의 협업으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유산의 활용방안을 제시
- 선정했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
- 오래된 것을 선정하기보다는 미래세대와의 연결 가능성을 살펴 미래유산을 선정해야
- 미래유산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을 주제로 구체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 소위 '미래유산 위키백과'와 같은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의 발굴 및 축적이 필요

정달영 문화예술분과 위원

- 행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서울시 부서 간의 정책공유가 필요
- 중·고교 학생을 위한 학외 활동으로 미래유산을 활용. 미래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미래유산 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배봉균 산업노동분과 위원

- 지금까지의 민간주도 공모방식이 오히려 사업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기획사업이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등 서울시 소속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미래유산의 숨겨진 이야기 지속 발굴
-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미래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이때 지역교육청(장학사)과의 업무협약이 필요
-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미래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분과통합 운영으로 미래유산의 가치를 다각화하고 활용방안도 다양화를 유도

안창모 도시관리분과 위원

- 미래유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긴 호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전문가 기고 등의 홍보방식으로 사라지는 미래유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
- 현재는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구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미래유산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구성,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미래유산을 선별
- 미래유산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필요

[제3차 자문회의(2022.09.26.) 주요내용]

정재정 정치역사분과 위원

- 시정방침의 변화를 계기로 미래유산 후보군 발굴의 범위를 새로이 확장할 필요가 발생
- 네가티브 유산의 경우, 이데올로기를 넘는 포용적인 해석이 요구
- 미래유산을 주제로 시민대학을 운영.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신설로 서울시 부서 간 미래유산 정책을 공유

박신의 문화예술분과 위원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유산의 가치를 따져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개념에서 탈피하기 어려워
- 이야기 중심으로 미래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구
- 미래유산에 담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 이때 4차 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 에든버러의 이야기 박물관이 좋은 참고 사례
- 서울역사박물관의 생활사 자료 조사사업과 연계, 미래유산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기록
- 미래유산 페스티벌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관련 이야기를 수집하고 홍보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미래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필요

손미영 시민생활분과 위원

- 미래유산 관리 활용의 지속성이 요구.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직무이동과 신규업무의 발생 등으로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
- 무언가를 새로이 하려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묵묵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
- 과도한 성과지향보다는 안정적인 지속 수행이 중요
-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미래유산의 관리 활용을 의존했던 것도 문제
- 서울시가 미래유산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이야기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

5. 향후과제

미래유산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사회적 인지도 분석과 문화영향평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향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유산의 향후과제 도출

향후과제	사회적 인지도 분석	문화영향평가	자문회의 내용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시민참여의 정도 -예술적 교류 형성 (예술을 통한 참여)	-미래가치 강화 -계층별 맞춤형 홍보시행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가치해석 충돌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	-가치해석 다각화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임대차 갈등 -운영난 -강제적 보전반대	-사회적 관계 형성 (갈등해소)	-관련 주체간의 협력확대

참여형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미래유산을 통하여 기존의 법·제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성의 가치가 새로이 주목받았다는 점은 가치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보전·관리되고 있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참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활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보고자 하였던 시도는 미래유산을 문화재와 동일시하는 시민들의 시각으로 인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의 정책추진이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보전 의지를 인정하고 지원하기보다는 미래유산의 발굴 또는 인정 건수를 알리는 데에만 치중하여 또 다른 문화재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기존 문화재 활용방식을 답습한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지난 10년간 선별한 미래유산의 범주가 다양하여 동일한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근현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완결성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문화재 활용방식을 답습한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일회성 문화행사의 반복적 시행으로는 차별화되는 미래유산만의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보다 입체적인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성으로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의 발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하여 제도상 경합 관계에 있는 등록문화재, 우수건축자산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래유산의 자발적인 보전의지를 고취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건축·토목구조물이나 마을 시장과 같은 유형유산에서 문학, 영화, 대중가요 등의 무형유산으로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같은 문학이라고 하여도 시, 소설, 희곡, 수필, 일기, 만문만화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유산이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방식도 개별 미래유산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문화되어야 하지만 현행 지원방식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 부동산 매입 등 모든 미래유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미래유산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주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유연한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미래유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1. 발전방향

보존을 넘어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 홍보 및 인식강화

2012년 미래유산의 시작과 함께 미래유산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틀 속에서 보호·관리를 받는 문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발굴, 보존, 활용되는 미래유산이 서울시민 사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향유 기회의 확대로 미래유산에 대한 혼란·편견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시민과 함께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를 향유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미래유산의 선별이나 가치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홍보방식을 서울시민이 직접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구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편화되어 버린 온라인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저변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한편 단순히 오래된 것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미래세대가 미래유산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발굴하고 서울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문화재와 차별화되는 미래유산만의 특성으로 특히 미래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전략을 통하여 미래유산이 새로운 서울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래유산의 심도있는 가치규명과 이야기를 통한 창의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동안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진하였고 새로운 개념의 문화유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적인 경험 부족으로 기존의 문화재에 적용되었던 프로그램을 답습함으로써 미래유산만의 차별화되는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이후 사업이 정형화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미래유산만의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래유산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인 갈등의 양상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래유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다양화되면서 미래유산의 해석도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유산에 대한 해석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인정을 위한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기초적인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유산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인과관계 및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유산의 깊이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출된 미래유산을 둘러싼 복합적인 해석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풍부한 소재거리로 활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편화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수집된 서울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생산한 이야기도 미래유산만의 활용 모델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여건변화로 인하여 멸실·훼손되고 있는 미래유산을 서울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활용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미래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정책 마련

미래유산은 기존의 문화재와는 달리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산물에 갇힌 문화유산이 아니다. 미래유산이 담고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보전가치에 따라 유형과 무형의 구분을 넘나들고 있어 이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보존·활용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치의 유형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존·활용정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은 별도의 법적 보호·제재 없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고 자발적·자율적 보존·활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유산 보존·활용 정책과 지원방식을 수정·보완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와 산하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미래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과 공유를 통하여 관련 부서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리적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지원사업의 내용도 미래유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이 미래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는 만큼 경제·사회·문화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자발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설개선에서 탈피하여 경영컨설팅, 분쟁상담조정 등 비물리적인 지원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유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맞춤형 행정지원모델(위기의 미래유산)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2. 추진과제

2.1 향유를 통한 미래가치 창조로 인식의 폭 확대

미래유산의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향유를 통하여 발전 가능성을 구현

미래유산은 ‘미래’와 ‘유산’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미래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이끌어내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근현대의 많은 기억과 감성이 다양한 장르의 미래유산으로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세대에 의한 새로운 문화적 재해석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미래유산은 문화재와의 동일선상에서 강제적인 보존이라는 오해와 지원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의 미래유산이 기존의 문화재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시각과 이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 미래유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사라져버린 유산은 대부분 가치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구현하는 데에 실패하였던 사례였다. 미래유산이 미래 문화발전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에 담긴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서울시민이 미래유산의 향유를 통하여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참여로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 향유를 선도

미래유산에 담긴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미래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미래유산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 대다수가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의하여 선별되고 그들의 향수를 달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레트로 문화이자 문화콘텐츠로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유산의 취지를 구현하는 한편 미래유산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타겟으로 한 미래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청년 예술인이나 온라인 청년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하여 미래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미래유산을 홍보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2.2 계층에 따른 맞춤형 홍보로 인식강화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고등학생의 참여를 강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다양한 미래유산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사업의 다수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추진된 사례가 있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가 없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그룹은 기성세대가 공유하는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미래유산을 그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민의 일원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교과과정 또는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유산을 접하고,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알맞은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최근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먹거리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의 동영상상을 통하여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 유튜버(You Tuber), 외국인의 한국방문이나 여행을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미래유산을 내국인을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소개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을 넓히고 미래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다각화함으로써 미래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서울의 근현대 변천사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근현대 서울시민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담고 있는 미래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미래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근현대 서울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현장은 물론 서울의 오래된 음식점이나 대장간, 고서점 등의 가게, 시장이나 마을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근현대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는 문학작품, 영화, 대중가요 등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이와 연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기념품·홍보물 제작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직접 미래유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어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

2.3 심화연구를 통한 가치해석의 다각화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시민들의 향토연구를 통하여 기초조사의 내용을 심화

지난 10년 동안 미래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래유산의 심의·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현황조사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미래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통하여 일부 심화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자료의 활용도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분석으로 미래유산의 신규 발굴, 문화콘텐츠의 확대·재생산 등 정책적 내실화를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학연구소 등을 통하여 미래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심화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 등의 도움을 얻어 미래유산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소장한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을 통한 신뢰성 높은 연구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편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향토 사학자 또는 서울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조사한 연구자료도 공유함으로써 미래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소재를 다양화한다.

심화연구를 바탕으로 네가티브 유산의 가치해석을 다각화하고 공론화

미래유산 가운데에는 상암동 일본군 관사, 한양공원비, 김성수 가옥, 서정주 가옥 등 과거 친일·매국 행위를 한 인물과 사건에 관련한 유산이 있어 일부 시민단체가 선정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는 네가티브 유산도 우리의 과오를 성찰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 보존·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인물의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하였다.

일제강점과 이념분단이라는 근현대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 종종 인물과 관련한 미래유산의 발굴·선정에 있어 해당 인물의 친일·매국행위나 월북·이적행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축이나 문학·예술작품의 경우, 학술·예술적 가치와 인물의 매국·이적행위에 대하여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워 선정이 보류되거나 선정되더라도 인물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 향후 이들 미래유산에 대한 심화연구를 통하여 충돌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다각화하고 공론화하는 보다 세심한 보존·활용방안이 요구된다.

문화행사를 통하여 사라지는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용을 함양

미래유산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향유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의 가볍고 친숙한 이미지를 서울시민에게 인식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미래유산은 시민의 자발적인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에게는 멸실·훼손 방지에 대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멸실·훼손되더라도 미래유산에 대한 제도적 제재는 없다.

미래유산은 무조건 보호되어야만 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생성·성장·소멸되는 문화유산이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용을 통해서 비로소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의 가볍고 친숙한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역사박물관과 협의하여 <잘

가, 동대문운동장), 〈안녕! 고가도로〉 등과 같은 특별전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기획·마련한다. 고별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를 통하여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용을 함양한다.

칼럼 | 고별전시회 〈잘가, 동대문운동장〉

개요

2014년 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발전을 경험한 서울에서 끊임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생성되는 도시 구조물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지난 시대의 삶의 흔적과 기억을 되짚어보는 특별전시가 열렸다. 〈잘 가, 동대문운동장〉은 한때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풍경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는 동대문운동장과 안녕을 고할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전시였다.

사업내용

동대문운동장의 탄생에서 철거까지 8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잘 가, 동대문운동장〉은 크게 ‘동대문운동장의 시간’과 ‘동대문운동장과 사람들’로 구성된 전시 프로그램과 동대문운동장 철거에 대한 서울시민의 감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 월 등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잘 가, 동대문운동장〉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경성운동장 사진엽서, 동대문운동장 간판과 관람석 의자 등 관련 자료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동대문운동장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



출처: museum.seoul.kr

전시 포스터(좌), 동대문운동장 관련 전시 소품(중)과 메시지 월(우)

사업결과

동대문운동장을 허물던 당시, 시민들은 철거 자체의 찬반에 집중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을 묵묵히 담아온 동대문운동장의 긴 역사를 차분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도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시간의 흔적을 품고도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노장(老將)의 역사를 기리고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잘 가, 동대문운동장〉 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4 스토리텔링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문화다양성 확보

심화연구를 통하여 기초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있는 이야기와 소재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기획·개발함으로써 미래유산이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 거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서울의 문화 창작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심화연구로 조사된 내용은 서울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한다. 이야기를 매개로 한 미래유산의 보존·활용방식은 문화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누구나 거부감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서울시가 미래유산의 홍보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래유산 홈페이지나 미래유산 홍보관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미래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층연구와 시민참여를 통하여 발굴한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한 문화콘텐츠를 실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극장, 윤극영가족, 체부동 성결교회 등을 우선 활용한다. 특히, 서울시 소유의 미래유산을 활용할 때는 소수집단의 문화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칼럼 | 도보체험 프로그램 〈서울감성여행〉

개요

서울연구원은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서울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미래유산 도보체험 프로그램인 〈서울감성여행〉을 출판하였다. 〈서울감성여행〉에서는 각각의 미래유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되 걷기에 편하고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한 가로를 중심으로 도보체험코스를 선정하였다. 코스에 따라 선별된 미래유산을 설명하는 책자, 도보이동루트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온라인(data.si.re.kr)에서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내용

서울의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각각의 문화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래유산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 도보만으로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바탕으로 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여덟 가지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에 적합한 미래유산을 선별하였다.

서울감성여행의 이야기 구성

배경	이야기
1920년대	新천변풍경
1930·40년대	근대도시 경성의 문화 기행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길
1960년대	한 여성의 일탈여행
1920년대	新천변풍경
1930·40년대	근대도시 경성의 문화 기행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길
1960년대	한 여성의 일탈여행



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별된 미래유산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하나의 답사코스로 연결하였다. 각각의 미래유산 답사코스는 크게 기본코스와 연장코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본코스는 여덟 가지 답사코스의 주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핵심코스로 걸어서 2시간 이내에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하지만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만나질 또는 하루 코스도 가능하도록 연장코스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연장코스의 경우에는 도보 이외의 지하철, 시티투어버스 등 다양한 보조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사업결과

〈서울감성여행〉을 통하여 소개된 미래유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기는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도보체험코스를 따라 현장에서 체험한 미래유산의 기억과 감성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미래유산의 이야기로 창작될 수 있었다. 또한 〈서울감성여행〉에서 소개된 미래유산에서 서울만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지속적으로 미래유산을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야기를 활용한 자립경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미래유산 보존·활용 사업의 경우, 미래유산의 가치공유 및 확산에 치중한 결과 경제적 자립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심화연구를 통하여 새로이 발굴된 미래유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존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식과는 차별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또는 지원하고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자립경제형 미래유산 보존·활용의 선순환구조를 제시한다.

칼럼 | 뮤지컬 〈광화문 연가〉

개요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이영훈이 작곡한 32개의 곡을 엮어 만든 뮤지컬로, 2011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하였다. 2011년 ‘올해의 뮤지컬’ 대상, 2012년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올해의 최고작품상 등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뮤지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80~90년대 팝 발라드를 이끈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붉은 노을〉,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 당시 이영훈의 명곡들로 구성되어 뮤지컬의 주 소비자층인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까지 포용하는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어트리뷰트 뮤지컬(단일 작곡가 혹은 단일 가수의 곡으로 구성된 뮤지컬)로 초연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다.

〈광화문 연가〉의 내용

〈광화문 연가〉는 러닝타임 2시간 30분의 2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 상훈과 여주의 아들 지용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엮어진 사랑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뮤지컬 사이사이에 삽입된 이영훈의 곡은 기존 노래를 사용하는 어트리뷰트 뮤지컬의 한계로 이야기의 흐름에 맞추어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주인공들의 감정에 따라 배치되었다. 또한 가사의 생략 및 반복, 위치 변경, 대사 삽입, 피아노 연주, 댄스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출처: donga.com, news.naver.com, withinnews.co.kr

작곡가 이영훈(좌)과 광화문 연가 포스터(중), 그리고 공연의 한 장면(우)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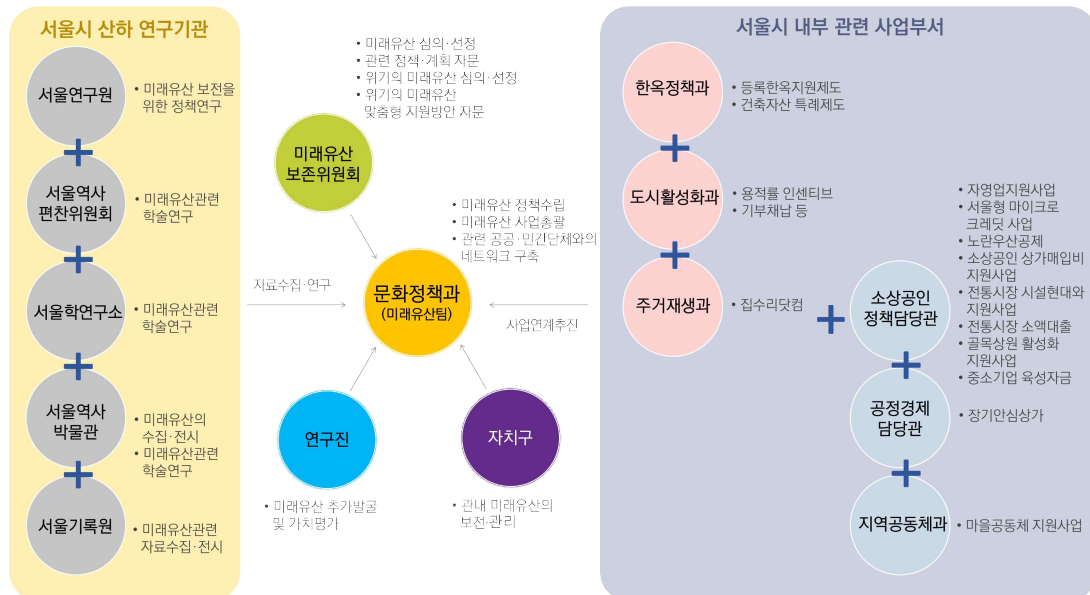
〈광화문 연가〉가 공연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어트리뷰트 뮤지컬은 아바(ABBA)의 노래로 구성된 〈맘마미아(Mamma Mia)〉, 퀸의 노래로 구성된 〈위윙락유(We will rock you)〉 등 외국 작품이었다. 국내에서도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동물원의 〈동물원〉, DJ DOC의 〈스트릿 라이프〉 등이 제작되기는 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광화문 연가〉는 이영훈의 명곡과 서사의 조화, 시나리오의 개연성 등 어트리뷰트 뮤지컬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지 한 작곡가 혹은 가수의 곡을 차례대로 부르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새롭게 재해석한 어트리뷰트 뮤지컬의 성공 사례로써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5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련 주체 간 협력강화

서울시 내부부서 및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미래유산은 유형이 다양하고 사례마다 처한 여건도 상이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여러 부서들을 비롯하여 자치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내 정보공유를 위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공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서울시 주택·도시, 문화·관광·체육, 자영업지원 등 미래유산 보존·활용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부서와의 행정협의체 구성 등 공조체계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입체적인 보존·활용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기부채납, 규제완화, 시설매입, 운영지원, 마을사업, 문화재등록, 도보관광, 경영컨설팅, 보조금·대출지원, 분쟁상담·조정 등 서울시 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치구 관련 부서와의 업무공조 강화 방향

자치구가 관내에 소재한 미래유산을 활용하여 도보관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을 기획·추진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자문 또는 사업운영비 일부지원, 자치구 행정평가 시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한편 서울연구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학연구소를 통하여 미래유산과 관련한 정책 및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에는 미래유산 자료들의 수집·전시를 요청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래유산 보존·활용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제반 사업을 조사하고 각각의 지원사업을 미래유산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선별, 매칭하였다.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높은 민간소유의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담고 있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오래된 가게, 특화가로·시장, 산업단지, 마을·골목, 건축·토목구조물로 미래유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미래유산의 보존·활용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_민간소유 미래유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주관 부서
오래된가게	서울시 자영업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담, 창업컨설팅, 자영업 클리닉,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시설개선, 사업정리 및 재기, 현장 체험, 자영업 협업화, 지역밀착 종합지원 등의 9개 프로그램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현대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기여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운전자금 15종(연매출액의 1/2~1/6 5억원 한도), 시설자금 11종(소요자금의 75~100% 200만원 한도)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	가입시 월 2만원의 희망 장려금 1년간 지원(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계약 대출 가능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건설업/운수업, 농업/임업/어업/금융, 보험업 등 10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장기안심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하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리모델링비 6,000만원 한도 지원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임대사업자(환산보증금 9억원 이상, 계약기간 10년 미만, 차임인상률 2% 초과 제외)	공정경제 담당관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7가지 분야(상가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대부업 ④문화예술, ⑤다단계, ⑥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피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상담 및 조정	전문상담(홈페이지, 전화·화상, 방문), 교육자료 배포	서울시민(상가임대차는 임대·임차인,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에 한정)	
특화가로·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보조	안전·화재예방시설, 필수기반시설, 보행편의시설, 고객편의시설, 판매지원시설, 홍보안내시설 등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사업추진주체를 갖춘 시장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를 육성, 지원	지역기반 로컬콘텐츠를 반영한 상권 단위 3단계(기반사업, 브랜드화, 자생력강화) 지원	서울형 골목상권이 50% 이상 포함된 상권(대표조직 구성필요)으로 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1/2 이상이 사업에 동의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주관 부서
마을 골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삶을 계획하고 사업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3단계로 맞춤지원	서울시 지원사업(서울시9개, 서울마을센터4개), 자치구 지원사업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역 공동체과
건축 토 목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거주자가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집수리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집수리전문관, 집수리 아카데미, 공구임대, 집 수리 보조·용자사업,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성공기 등 7개 서비스 제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주거 환경과
	한옥등록제도	서울시 소재 한옥을 등록하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수선 및 신축 시 공사비 지원, 세금감면(종로 구, 성북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선배정(종로 구),	서울시 내 등록한옥	한옥 정책과

미래유산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

전주시와 부산시처럼 미래유산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미래유산의 발전방향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통하여 각각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유산의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발표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 공통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서로의 성과와 실패를 거울삼아 현행 세부사업의 추진방향을 수정·보완한다.

자치단체별 미래유산 조례 지정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5.07.30.	제정
파주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8.09.28.	제정
전주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9.12.20.	일부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0.06.18.	제정
공주시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11.09.	제정
의정부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12.30.	제정
동해시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5.14.	제정
청주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6.11.	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6.30.	제정
원주시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2.10.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2.07.06.	일부개정

2.6 세심한 보존·활용을 위한 운영방식 업그레이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지난 10년 동안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는 미래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가치를 규명하는 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래유산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보다는 전문가의 학술적 시각에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미래유산의 활용에 있어 프로그램 기획이나 자문 등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현장 실무자나 미래유산 보존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시민대표 특히 미래유산의 미래가치 만들어 가야 하는 청년세대의 참여를 늘리도록 한다. 한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교수 등 전문가의 비중 감소로 인한 미래유산의 가치규명이나 선정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유산 심의·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미래유산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여러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미래유산 선정은 분과별 단편적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미래유산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분과별 보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과 논의를 통하여 미래유산이 선별·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내용 확대

서울시는 2018년부터 영세한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받는 동시에 보조금지급,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에 의한 자발적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미래유산의 경우, 도시개발·정비사업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사회변화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멸실·훼손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자발적 보존·활용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유산 본래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된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은 미래유산 소유·관리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훼손 정도,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성, 지원의 긴급성 등을 보조금심의위원회(미래유산 관련전문가로 구성)가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소유·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활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운 미래유산에 대하여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소유·관리자의 보존·활용 의지와 자긍심을 고취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현행 건축물 수리 및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미래유산의 무형적인 가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의 신청내용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행 맞춤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 김남주·박지훈·전성애, 2019,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
화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 삼일로창고극장, 2019, “삼일로창고극장 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5,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본보고
서”
- 서울특별시, 2015,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정비사
업 실무 매뉴얼”
-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본
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7, “체부동 성결교회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및 관계법령 특례적용 자문에 관한 건
촉위원회 상정안”
- 서울특별시, 2018,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서울특별시, 202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 서울특별시·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2021, “체부동이야기(연간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7, “문화재 정책 사례연구: 딜쿠샤(Dilkusha) 문화재 등록과정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 서울시 보도자료, 2022.05.18.,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상가임대차)”
- 서울시 보도자료, 2022.04.05., “상가임대차분쟁 해결”
- 서울시 보도자료, 2018.03.14., “서울시, 영세한 미래유산 지원. 수리비 최대 1천 5백만원”
- 연합뉴스, 2018.09.13., “‘제2의 공씨책방 막자’...영세한 서울 미래유산 지원”
- 조선일보, 2015.09.02., “[3.1운동 알린 UPI통신사의 집] 기재부-서울시 갈등에 금 가고 물 새는 '딜쿠샤'”
- 중앙일보, 2018.02.09., “46년 전통 ‘공씨책방’ 임대료 때문에 둘로 쪼개진다”
- 홍주일보, 2019.05.02., “서울 헌책방의 대명사 국내 1세대 ‘공씨책방’”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9호)
-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043호)

인터넷 홈페이지

- 객석 <https://auditorium.kr>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heritage.go.kr>
- 내손안의서울 <https://mediahub.seoul.go.kr>
- 뉴스앤조이 <https://newsnjoy.or.kr>
- 서울균형발전포털 <https://uri.seoul.go.kr>
- 서울문화재단 <https://sfac.or.kr>
- 서울사랑 <https://love.seoul.go.kr>
- 서울생활문화센터체부 <https://ccasc.or.kr/>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 서울책보고 <https://seoulbookbogo.kr>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surc.or.kr>
-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
- 성동구청 <https://sd.go.kr>
- 창고창고 <https://samilro.com/>
- fromA <https://froma.co/articles/293>

연구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미래유산팀장	김은경
담당	박숙경
	이소연
	권도형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민현석	ㅣ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오지연	ㅣ	연구원

외부연구진

연구원	민병학	ㅣ	고려대학교 스마트도시학과 연구교수
	이상민	ㅣ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공병준	ㅣ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표지디자인

방&리